



時計塔

SIGETOP



2023년 1월 20일

서울대학교醫科大學北美洲同窓會 發行

제50권 1호

Unit #810, 5501 Merchants View SQ, Haymarket, NA 20169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발행인: 田璟培
편집인: 徐倫錫

편집위원: 金明源 徐亮 羅斗燮
徐仁錫 徐貴淑 朴恩景

자문위원: 盧鎔冕 金炳哲
許善行

snucmaa@yahoo.com

www.snucmaaus.org



신년사

회장 전 경 배 (75, 남가주)

존경하는 북미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22년이 드디어 물러 갔습니다.
동문 여러분과 가정에 별일이 없으셨기를 바라며 새해 인사드립니다.
모쪼록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활기찬 한 해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를 맞아 봄에 열리는 제38차 연례 학술 대회는 3월 30일 목요일부터 4월 2일 일요일까지 남가주 LA 근교에 있는 Cerritos Sheraton Hotel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성환(71) 동문님의 책임하에 순조로이 진행 중이며, 흥미롭고 유익한 여러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뵈울 예정입니다. 날씨 좋고 아름다운 남가주에서 가족, 친구들과 보내시는 시간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젊은 동문들께서는 가족과 함께 오시면 가까이 디즈니랜드를 비롯한 재미있는 워낙 공원이 많이 있어서 방문하기가 수월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학술 대회를 위해 본국에서 김정은 학장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며 날로 발전하는 모교 소식을 들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각 동기별 모임도 계획 중이니 많이 참석하셔서 동기들과의 만남도 즐기셨으면 합니다. 코비드가 다시 기승을 부린다고는 하나, 현재 남가주 사정은 그리 나쁘지 않고 마스크 쓰기도 자발적 권고 정도입니다. 3월 말쯤이면 더 완화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동문님들의 지성과 교양, 재미를 위해서 많은 동문님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가지시고 동기, 동문님들과의 돈독한 우정을 쌓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새봄에 따뜻하고, 아름다운 남가주에서 많은 동문님들 건강 모습으로 뵈울 수 있기를 고대하며 새해 인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전경배 올림



김명원(68, 남가주) 동문의 신년 삽화

SNUCMAA

38th Annual Medical Convention

March 30(Thur) ~ April 2 (Sun), 2023

Sheraton Cerritos Hotel

12725 Center Court Drive, S. Cerritos, CA 90703

제38차 학술대회 안내 공고

- 2023년 3월 30일(목) 골프와 대의원회, 동기모임
 - 2023년 3월 31일(금) Non CME, Scientific session, 저녁 Banquet(시상식)
 - 2023년 4월 1일(토) Scientific session, Non CME, 저녁 Reception과 Grand Banquet
 - 2023년 4월 2일(일) Breakfast and Lunch 담화시간
- ***3월 31일, 4월 1일, 4월 2일 아침식사와 점심식사는 동창회 제공

호텔 방 가격과 예약 전화 번호, 예약 link:

\$159/night under the block name, SNUCMAA of NA

Tel: (562) 403-2003

sarah.cane@sheratoncerritos.com

Link: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에서 보내 드리는 email의 link로 하시면 됩니다.

2023년 3월 29일에서 4월 3일까지 기간 동안만 이 rate으로 예약 가능하며, 예약 만료일은 3월 9일 입니다. 이후 날짜에는 room rate이 올라 갑니다.

골 프:

2023년 3월 30일(목) 오전 11시 시작

장 소: Friendly Hills Country Club / 8500 S. Villaverde Dr. / Whittier, CA

신청연락: 박일우(71) 휴대폰 (714) 886-8887

가 격: Country Club golf only \$150/person

****첨부된 Registration Form을 작성 하신 후 반송봉투에 넣어 보내주시시오. ****

서울 대학교 의과 대학 북미주 동창회

회장: 전 경 배(75)

Convention Chair : 김 성 환(71)

제2차 이사회 초록

2023년 1월 14일(토요일) 동부 오후 3시(서부 낮 12시) 화상회의

참가자:

이만택(58) 김태웅(63) 최영자(66) 서윤석(68) 김성환(71) 김일영(71) 서인석(73) 전경배(75) 남명호(81) 김자성(85) 강민중(91) 박종철(99) 박혜성(06) 송경민(09) Mrs. 김영애

proxy:

한기현(63) 권정덕(64) 허선행(64) 최준희(64) 이명희(66) 신규호(68) 주광국(68) 이원택(71) 강창홍(71) 조병선(71) 정균희(72) 고용규(73) 한민우(75) 안우성(76) 한승신(76) 최광휘(76) 김동훈(77) 이선희(81) 차민영(82) 서귀숙(84) 임경빈(99) 박은경(00)



1. 2023년 1월 14일(토요일) 동부시간 오후 3시에 Zoom meeting으로 제2차 이사회가 김성환(71) 동문의 사회로 진행으로 시작하였다.
2. 지난 회의 초록(2022년 8월 27일 제1차 이사회)을 요약하여 읽은 이후 참석 전원의 동의를 받고 2차 이사회의 각 부서 보고가 이어졌다.
3. Treasurer(85 김자성)의 재무 서면 보고:
2023년 1월 13일 현재의 은행 잔고와 2022년 7월 1일에서 2023년 1월 13일 현재까지의 동창회비의 합계와 각 committee fund의 합계 액수를 보고 하였다.
4. Finance committee(71 김성환 chair): 지난 회기의 세금 보고가 잘 진행이 되었음을 보고 하였다.
5. Fund Management committee report(Fund Manager, John Baek) :
1998년에 투자 금액과 그동안 지급된 금액, 현재 원금과 이자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022년 한 해 주식시장이 평균 25% 하락한 상황에서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fund는 YTD 4.7% 수익률이 있었음을 보고 하였다.
6. Scholarship committee report(91 강민중 chair): 2022년 9월 11일로 서류 마감이 된 미주 동포 자녀에게 수여되는 장학생 선발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명의 김태웅(63) 장학생과 4명의 SNUCMAA 장학생이 그리고 1명의 이상설(58) 장학생이 선발 되었고, 수상자의 감사편지를 선별하여 시계탑과 website에 올렸음을 보고 하였다.
김태웅(63) 장학생을 다음 회기에서부터는 3명을 선발해 달라는 김태웅 동문의 의견이 있었으며 본인 생전에 대해 1만 불씩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다음 회기에는 고 이상설(58) 부인 김정화 여사께서 지원하신 나머지 1명의 장학생 (2천5백 불)과 고 정일환(63) 동문의 부인이신 최문숙 여사께서 지원하신 5천 불에 대한 장학생 선발이 이어질 계획이다. 그리고 Scholarship committee와 Green Project가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원금의 사용에 관하여 고 김국민(60) 동문의 부인

김공자 여사께서 매년 1만불씩 지원하는 것은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Green Project member들에 대한 지원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이상일(60) 동문의 지원금 1만 불과 scholarship fund를 갖고 서울의대 본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추가 study를 추진하는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세부 방안은 별도 회의에서 정하여 보고를 하기로 하였다. 이는 Green Project chair 임경빈 동문과 Research and Fellowship chair 박혜성 동문이 함께 의논을 하기로 하였다.

7. 시계탑 편집위원회 보고(68 서윤석 편집장): 1월 14일 오후 1시부터 Zoom으로 편집회의가 있었다. 한국 동창회에서 발간한 2022년 동창회 명부는 3월 말에 열리는 제38차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그곳에서 받아 갈 수 있다고 보고를 하였다. 계속 이어지는 변화에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에서 발행한 2015년 동창회 명부에서 Update가 되었으며 한국 동창회에서 2022년 명부를 미주로 보내오는 것은 제한적이라서 부득이 학술대회 참석자에게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 있었다.

시계탑 운영은 다양하고 우수한 원고를 보내오시고 많은 성원을 입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8. Scientific committee report(99 박종철 chair): 제38차 학술대회의 주제도 지난 학술대회에 이어서 Healthy Aging으로 Living Long and Living Well과 Next Generation in medicine을 두고 session이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하루 전체의 강의를 있을 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Green Project member 다수가 동부에 거주하고 있음으로 서부로 항공여행을 하게 되면 시간 차 이유로 원래 계획인 토요일 하루 전체와 일요일 오전 강의를 금요일 오후 강의와 토요일 전체 강의로 변경을 요청하였다. 추가 다른 주제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연락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Green Project member speaker의 우수한 Abstract을 얻고자 참여자 전원 6명의 speaker의 Abstract 준비 지원금 각 \$500씩 지원하는 것을 제안하여 이사회에서 승인이 되었다.

9. Convention committee(71 김성환 chair): 제38차 학술대회의 General Program 소개가 있었고, 1월 호 시계탑에 상세 내용이 게재되며, Registration form 등이 시계탑과 함께 발송될 예정임을 보고 하였다.

골프 (3월 30일)에 대한 문의는 박일우(71) 동문에게 할 것을 보고 함.

10. Non CME committee(71 김성환 부인, 김영애):
3월 31일(금)과 4월 1일(토) Non CME 강의는 감사와 주제와 내용이 정해져서 순조롭게 준비 중이라고 보고 하였다.

11. Charity committee (66 최영자 chair) 보고: Charity committee가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NYCOCO(뉴욕 장애아동지원센터)이 COVID 사태 이후, 장애 아동이 격리 지침을 지키는 일도 어렵고, 구인도 힘든 상황이 지속되어 나아지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Chaitable activity가 매우 중요한 다른 곳에 지원할 곳을 찾고 있는 중 알아 본 것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것인데 이는 더 큰 fund가 필요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받기를 청하였다.

12. 전경배 회장 보고:
새해 인사와 함께 각 동기 대표가 동기들에게 제38차 학술대회에서 동기모임 개최할 것 등을 긍정적으로 참여를 구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현재 서울의대 미주동창회의 앞으로 갈 길에 대해 Green Project member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동창회의 연로하신 회원의 작고 시에 조화를 보내고 조의를 표하는 것을 본인 회기에는 진행하겠으나 그다음에도 계속하여 이어지기를 원한다고 하였다.

2019-2022 10명의 이사진의 유임을 부탁 예정이고, 만약 사퇴를 하시면 더 젊은 동문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참석자의 본인의 간략한 근황 소개와 곧 개최될 38차 학술대회에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기를 기원하면서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버지니아 지부 2002년 송년 모임



2022년 12월 6일 정오 버지니아의 센터빌에 있는 강촌 연회장에서 3년 만에 모임을 가졌다. 동창 22명, 사모님 15분, 제이미 김 동창회 사무장 포함 총 38명이 모였다. 힘든 코로나를 이기고 오신 것을 환영한다는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신용계 동문의 지난 학술대회 경과 보고와 회계 보고가 있었다. 사회는 주광국 Website 위원장이 맡았고 조병선(71) 테너의 리드로 서울대학교 교가 합창이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이어서 그동안 작고하신 임종식, 고재경, 김윤태, 조창남, 박용분 김용덕 선배님 부인에 대한 묵념을 드리고 진행되었다.

동창회와 모교의 인사 이동 상황과 차기 제38차 미주 동창회 학술대회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스에서 열리는 소식을 전했고 많은 참가자가 인기를 권했다. 근래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버지니아로 이주해 오는 동문들의 수가 증가한다는 기쁜 소식과 또 동창회 본부 사무실이 뉴욕에서 버지니아로 이동하게 된 기쁜 사실을 Jamie Kim 사무장이 직접 설명했다. 따라서 의아하게 생각하던 시계탑에 나온 동창회비를 납부하는 주소가 Haymarket P.O. Box가 맞다는 것을 확인했다.

한식과 중국요리를 곁여 준비한 전식과 식사를 나누면서 각 동문마다 마이크로 폰을 돌려가면서 지난 긴 시간 동안 있었던 자기소개를 최소한으로 간략하게 설명했다. 참석하신 동문들 중 58년 졸업 이종국, 김부근 님들이 최 연장자였고 74년 졸업 유영준 님이 최 연소자였는데 많은 더 젊은 동문들은 이번 모임이 주중의 낮 시간이라 환자를 진료하느라고 참석을 못 했다. 특히 남명호, 신원석, 장세권 동문들이 그 예가 된다.

오랜만에 만난 탓인지 모두들 진지하게 연회장이 떠나갈 듯이 밀렸던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다. 또한 후식 후, 사진 촬영을 했다. 대부분의 부인들이 사진 촬영을 극구 사양을 해서 동창분들만 기념촬영을 했다. 이 모임을 위하여 서울 모교 동창회에서 비싼 송료를 지불하고 보내온 2023년 달력(모교 동창회 발행)을 나누어 받고 이제부터는 자주 만날 것을 약속하고 서로의 건강을 당부하고 헤어졌다. 다음 모임에서는 서울 모교동창회에서 발행하는 새 주소록이 도착되는 대로 배부될 예정이다.

참석한 동문들; 이종국(59) 김부근(58) 나길진(59) 한달수(59) 김용덕(59) 진창건(61) 서휴열(61) 김진수(66) 유달(67) 방정화(67) 신용계(68) 주광국(68) 김주평(68) 김희주(68) 김진홍(68) 김철(68) 서윤석(68) 김병오(69) 박동수(71) 조병선(71) 김홍영(72) 유영준(74) 이며 그 부인들과 Jamie Kim 사무장이다.

글: 버지니아 Chapter 아홉 명의 68년 동기 일동.



68년 졸업 워싱턴, 버지니아 골퍼들. 2022년 12월 말 김명덕, 김주평, 김희주, 김철, 서윤석, 신용계, 김진홍, 주광국

조현 화가(조남현 동문 부인) 작품 소개



최근 워싱턴 지역 한국일보에 조남현(70) 동문의 부인 화가 조현 씨의 작품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다. 조현 화가는 Women Artist of the Century in America 20으로 2004년에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서양화가 김옥지(김진수 66년 동문 부인) 씨의 소개와 그의 따뜻한 작품이 한국일보 워싱턴 판에 지난 12월에 소개된 바 있다.

작품 '마라난타(Maranatha) 4-22'

20년 전 우리 가정에 말할 수 없는 큰 고난이 닥쳤다. 작은 딸의 병이 조현병(Schizophrenia)이라 해서였다. 1972년도에 이민 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 왔지만, 우리 가족에게 이 문제는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까무러칠만한 현실이었다. 여러 의사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후, 내가 엄마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었다. 20년 후인 지금, 딸은 우리 식구들 중 가장 부드러운 목소리와 맑은 미소를 짓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었다. '주여! 당신의 은혜와 축복이 제 가슴에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차 있습니다.' 지금, 나에겐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작품을 '마라난타 (Maranatha)' 시리즈로 표현하고 싶을 뿐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졸업 60주년 기념행사에 다녀와서

김 한 중(62, 뉴저지)



우리 1962년 졸업 동기생 평균 나이가 85세인 2022년 10월 17일에 서울 롯데 호텔에서 22명의 동기와 가족이 의대 학장님, 병원장님을 모시고 자축회를 할 수 있었다. 이 모임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으로 행운아들이었다. 힘든 세월 중에도 복을 많이 타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우리 세대는 2차대전을 목격했고, 6.25전쟁 중 1.4후퇴에서

도 살아남았고 66년 전 입학이 쉽지 않았던 때에 서울 의대를 들어와서 우리나라 당시의 최고의 교육을 받고 6년 후 모두 의사가 되었으니 말이다. 재학 중에 4.19 때는 흰 가운을 입고 데모에도 환자 진료에도 참가했던 일도 있고 여러 정권이 바뀌면서도 우여곡절 끝에 우리 입학 당시에는 손을 꼽는 빈곤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것을 본 행운의 세대이다. 이번 모국과 모교를 방문

하면서 그 발전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니 참으로 감회가 깊다.

1956년 우리 동기는 123명이 입학하여 1962년 졸업 후 지난 60여 년 간 자기를 나름대로 포부를 안고 온갖 노력 끝에 졸업 후 국내외로 퍼져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업적을 남겼다. 우리 동기들의 진료를 거쳐 간 생명들의 숫자는 수백만 명, 수 천만 명이 더 될 것이며 아직도 몇몇 현역으로 봉사하는 동문계는 존경의 뜻을 표한다. 그런데 이번 졸업 60주년 행사를 계기로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모교의 발전을 위하여 생각할 기회를 우리 동기들은 갖게 되었다. 요즘도 66년 전과 같이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게 들어가는 곳이 서울 의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는 명석한 의사들을 배출하는 서울 의대 학자들 중에 아직도 노벨상을 탄 사람이 없다는 것에 의문도 던져보았다. 그리고 선진국들의 유명 대학들의 연구기관에 투자하는 재정적 능력에 대하여 찾아보았다. 넉넉한 재정적 지속적(Perpetual), 충분한 보조(Support)

만이 학문의 발전에 힘을 부여하고 우수한 업적을 이룩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 사실은 의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선진국의 유명 대학의 재정을 조사 분석해 보니 동창들이 기부한 자금과 심지어 유산(Bequest) 기부가 주요한 부분인 것을 발견했다. 경제 불황이나 위기에 좌우되지 않고 꾸준한 연구를 하여 실적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에 비례하여 대학 졸업생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다. 국민소득이 세계 10위 안에 있다. 이제는 부강한 국민으로서 모두들 모교에 기부하고 심지어 유산을 남기는 풍습을 시작하면 우리도 노벨상을 탈 수 있고 또 그 이상의 인류에 기여하는 지도자를 배출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런 뜻을 받들어 우리 62년 동기들은 이번에 해외 거주 14명과 국내 거주 24명(생존자의 과반수)이 의과대학과 동창회에 기부금과 유산 헌납인 Bequest를 드렸다. 앞으로 이 운동의 보람된 뜻을 동참하는 후배들의 적극적인 열정과 성원을 기대한다.

김한중 선배님과 편집인의 대담

주제: 졸업 60주년 행사를 마치고 - 2022년 12월 8일

- 이번 행사에 몇 분이나 참여하셨나요?
미국에서 5 부부, 한국에서 17 부부가 참여했습니다.
- 언제부터 준비하시고 어디에서 행사를 하셨나요?
준비를 1년 전부터 했고 Lotte Hotel 장소와 행사 준비를 서울 동기들이 대학과 의논하여 했습니다.
- 기념 여행을 하셨나요?
여행을 계획했다가 취소했습니다.
- 모교를 방문하셨습니까?
미주 학년 대표인 김한중 혼자만 방문하여서 김정은(93년 졸업) 학장님과 30분 정도 환담하고 미국 대학들의 기부(Endowment) 자료를 드리고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 그럼 기부금도 전달하셨겠네요,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요?
미국 동문들이 \$75,000을 의과대학 Academic Research Fund로 드렸고 한국 동문들이 한화 4천2백만원(약 4만 달러)을 동창회에 전달했습니다.
- 기부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뒤졌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이만택 선배님이 오랫동안 말아서 봉사하시는 서울대학 미주재단을 이용해서 세금 혜택을 받으셨는지요?
한국 대학 중에 그래도 우리 의과대학이 제일 많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뒤져있습니다. Finance를 전문하시는 분들이 그 기부 Endowment/Bequest System을 동창들에게 소개해서 참가하도록 장려 해야합니다.
- 네, 이번에 저의 동기들은 이만택 선배님의 서울대학 미주재단을 통하여 의과대학과 동창회에 기부를 해서 편리했으며 세금 혜택도 받게 됐습니다.
- 이번에 모임에 다녀오시고 남는 느낌은?
아직 살아남아 있는 친구들을 다시 보았다는 것,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참으로 기뻐했습니다.
- 동기분들의 생존율이 미국과 한국이 다른가요?
확실히 미국 동문들이 더 많이 살아있어요. 아마도 공해가 덜한 주거 환경, 경제적인 안정감, 적은 스트레스, 확 열린 평등한 사회환경, 비교적 적은 흡연, 음주 경력 등등이 이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친구나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은?
의대 6년을 같이 다니면서 서로 알게 된 귀중한 친구들 여러분, 어떻게 서로 소식도 없이 살 수 있었습니까? 앞으로 더 연락하고 도우면서 남은 여생을 살아갑

- 시다. 또 모두들 '돈', 이 자금을 대한 연구도 하시어 서울의대 미주동창들과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합하여 SNU Endowment Fund를 1Billion(최소한) Dollar를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모교를 빛내시고 그 노력이 우리나라와 나아가서 인류를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10. 건강을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 또 종교활동도 하십니까?
저는 가톨릭 신자이고 주일날이면 꼭 성당에 나갑니다.
- 3살 때부터 팬이치기로 시작해서 수영, 스키, 골프 등을 아직도 하고,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다 테니스를 쳤는데 우리 부부 친구들은 근래에는 힘들어져서 만나서 점심이나 같이 하는 '식자회'를 즐기며 삽니다. 특히 골프를 아내와 함께 가끔 즐깁니다.
11. 끝으로 현재 애쓰고 계시는 서울대학교 Endowment을 10억 불을 마련하시는 것이 목표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리스트에 올라온 명문대들은 큰 기부자들이 있었고 역사와 전통도 긴 것으로 아는데... 이 문제는 수십 년간 애써오신 이만택 선배님이 잘 아시지만, 작고하신 의대 선배님들 중에 김기태(58), 김현(66) 같은 훌륭한 분들이 두드러진 (50만 불 이상)의 액수를 기초의학교실에 기부한 것을 저는 잘 압니다만 그것은 아주 드문 일이고... 노년에 경제적 사정이 그리 여유롭지 못한 분들, 또 생의 Priority를 자식들에게, 종교단체, 혹은 다른 자선단체 등등 어디에 두느냐 하는 철학적인 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답: 제가 제시한 세계 명문 대학의 그 기금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서울대학이 뒤져있는지를 실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62년 졸업 동기들이 금액을 모으면서 느낀 것은 모두들 어려워진 함춘회관과 동창회의 살림이나 보태자는 것보다 더 많이 동문들(김한중 나 자신의 1/10포함)의 사후 유산의 일부라도 모두들 조금씩이라도 내놓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 동문 안철수같은 부자 사업가들이 기부를 하면 쉽겠지요. 또한 기금이 모이면 서울대학이나 동창회에서 그런 기금을 관리하는 전문 Finalcial Committee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이런 사항을 지난 모교 방문 시에 학장실에서 설명했지요. 이 생각에 대하여 미주 의대 동창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023년 3월 말 LA에서 열리는 우리 38차 학술대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금액이 많이 모이면 그 이자 만으로도 학자들이 지속적인 연구를 할 수 있고 노벨상의 꿈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편집인; 뉴저지 지역사회에도 기부하신 기사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의학학술원의 석학 기생충학의 고 조승렬(68동기) 교수가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우리나라 현 시스템을 설명한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연구기금의 부족도 그 한 원인이 아니겠습니까? 연로하시고 은퇴하시는 동문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쇠화되는 동창회의 앞날, 모교의 발전 등 걱정이 되는 일이 많은 이 시점에서 선후배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으는 일은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 김현중(50) 오하이오에서 은퇴하시고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다 별세하셨습니다.
- 양겨영(55) 은퇴 후 뉴욕시 플러싱에 거주 하시다 별세하셨습니다.
- 임종원(57)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 거주하시다 지난 6월 4일 별세하심.
- 김학륜(58) 펜실베니아에서 산부인과 전문의로 활동하시다 지난 1월 19일 소천.
- 김윤경(61)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시다 지난 12월 16일 별세하셨습니다.
- 차철준(61) 소아과 전공의로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시다 지난 6월 7일 별세 하심.
- 김명준(63) 캐나다 밴쿠버에서 거주하시다 지난해 10월 16일 별세하셨습니다.
- 차웅만(64) 은퇴 후 하와이에서 거주하시다 지난 12월 14일 별세하셨습니다.

차웅만 동문의 따님이 보내온 편지



Hello, My name is Sandy Cha Sifferlen. My father Eung Man Cha was a graduate of SNU undergraduate school and medical school (1964 graduate). I am sorry to inform you that he passed away peacefully today, December 24, 2022.

Please see below for his obituary:

Eung Man Cha of Honolulu, Hawaii, passed away peacefully with family by his side on December 24, 2022. Dr. Cha was born in Pyeongyang, North Korea in 1936 the son of Cha Chan Keun and Hyun Choon Kyu and the second of seven children.

Dr. Cha survived colonial rule under Japan and escaped to South Korea as a boy in April of 1947. From there he went on to graduate at the top of his clas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undergraduate and medical schools. He met and married Sue Ok Cha and they took the leap to immigrate to the US for his residency at Cook County Hospital in Chicago. Dr. Cha worked over 37 years as a radiologist and professor at Mount Sinai Hospital, Rush Presbyterian St. Luke's Hospital, Assistant Professor at West Virginia University, McNeil Memorial Hospital, Daviess Community Hospital, and raised 4 children in Wilmette and Inverness, Illinois. He was passionate about his family and community and spent many hours to support and give voice to the needs of the growing Korean-American community in Chicago,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Services center (now known as the HANA Center) and two Korean retirement homes in Chicago

His loving wife passed away after battling illness in 1991. He then married Okee Cha in 1992 and gained a step son to begin the second chapter of his amazing life. He and Okee moved to Oahu, Hawaii after his retirement. The two of them loved island life and explored, hiked and picnicked all over the island - they picked fresh mangoes, avocados and lots of macadamia nuts along the way. He also enjoyed daily walks in Waikiki and watched lots of Dodgers baseball, Korean soap operas and game shows. He was a deeply faithful and sweet man who has left an incredible legacy.

Dr. Cha will be deeply missed by his family. He always put them first and gave hugs and kisses freely. They will miss his warm smile, soft hugs and kindness. He was predeceased by his mother and father, siblings Cha Myung Shil, Cha Bok Shil, Cha Eung Jun, first wife Sue Ok Cha, infant son and his granddaughter Mirabel Telfair-Cha. He is survived by his loving wife O'Kee Cha and four children Sandy Cha (Mark) Sifferlen, Charles Cha, Stephen (Megan Telfair) Cha, and Brian Youngblood; his grandchildren Julia, Charles, Kate, Claire, Michael, Thomas Sifferlen; Alexia and Jacob Cha; Gabriel Telfair-Cha, Jane and Evelyn Youngblood; siblings Cha Jeong Shil, Cha Eung Nam and Cha Eung Yup.

편집위원이 만난 동문

1. 미국에 언제 어떤 계기로 오셨나요? 돈을 얼마나 가지고 오셨나요?
2. 결혼에서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가장 행복했던 때는?
3. 왜 의사가 되셨나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제일 중요한 의사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그동안 하셨던 연구분야는? 임상을 하셨다면 전공과목은?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들었을 때는? 6.25 사변 때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가장 보람된 경험은 언제이었던가요?

최영자 (66) 선배님



1. 졸업한 후 대학병원에서 2개월 인턴을 한 후 뉴욕에 있는 Brooklyn Jewish Hospital에서 internship에 matching이 되어 1966년 6월에 미국으로 오게 됐지요. 미국에서 산부인과 훈련을 받아서 가장 기술이 높은 산부인과 병원을 한국에 세우는 것이 원래의 저의 희망이 있었으나 인턴십을 하면서 산부인과 전공은 응급이 많고 research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research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병리학으로 바꾸었지요.

돈은 \$200를 가지고 왔습니다. 영어회화를 배우기 위하여 그 돈으로 Zenith TV를 사서 뉴스나 영화를 계속 열심히 보았으나 영어실력은 늘지 않았어요.

2. 1969년 제가 뉴욕의 Memorial Sloan Kettering 병원에서 fellowship 훈련을 받고있을 때 경기고녀 동창생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러시아 언어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그 친구의 요청으로 필라델피아를 방문하게 되었지요. 우리가 저녁을 먹으러 나갔을 때, 친구가 같은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그녀의 남자친구의 친구와 같이 나와서 blind date를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분도 가톨릭신자였습니다. 우리는 종교생활과 신앙에 대해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잘 이해하고 가까운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분과 1972년 10월 14일에 뉴욕에 있는 St. Patrick Church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1972년에는 한국사람도 별로 없고 피로연 장소도 없었지요. 그러나 저희는 뉴욕의 유일한 한국식당인 삼복 한식당에서 성대한 결혼식 피로연을 가졌지요. 대학 친구, 친척과 병원 staff 등 많은 분들을 모시고 큰 잔치를 했어요.

행복한 시간: 여행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중 하나입니다. 결혼 후에 red Volkswagen beetle을 타고, 미국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였지요. 아이들이 태어난 후에도 우리 식구는 다시 미국 전역과 해외를 여행하였던 것이 참 즐거웠어요. 미국 땅에서 가족을 이루고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큰 뜻이 있었지요.

3. 의사가 된 이유: 어렸을 때 흰가운을 입은 의사를 동경했지요. 그들이 매우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아플 때에 가루약 봉지를 몇개 복용하면 환자가 완치되니 의사가 magician으로 보였지요.

의사로서 가장 중요한 조건: loving care and passion: 시간여유를 갖고 환자자와 대화하면서 정성껏 대하는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4. 전공분야는: 병리는 질병에 대한 final word and diagnosis를 제공 할 수 있어서, 의학에서 가장 기본적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병리학자는 책임감도 많고 제일 큰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요.

Research: Yale School of Medicine에서 오랫동안 유방암 연구를 했어요. Estrogen Receptor (ER)-beta는 근래에 발견되었는데 이 receptor가 breast

cancer 치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했지요.

5.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삶의 진정한 의미, 가치와 행복을 찾아내는 것, 또 봉사하는 삶이지요. 이 나이에 아직도 Life에 대한 진정 의미를 찾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명상, 종교 책, 여러 사람들의 강의를 통해서 이것들을 습득하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The How of Happiness by Sonja Lyubomirsky를 읽으면서 느낀 것이 많았어요.

가장 힘들 때: 내가 누구인가를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즉, 인간의 limitation을 착각하고 있을 때이지요. 깊은 신앙이 부족하여 고통을 느끼는 것이예요.

보람된 일: "Hard Work" is the Virtue.

* 6.25 후에 시골에서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저는 다른 또래 아이들보다 2학년 뒤 처져 있었지요. 열심히, 공부하여 다른 아이들과 같은 수준으로 두 학년을 월반하였을 때이지요.

* 뉴욕에 있는 유대인 병원에서 여자로서 처음 병리학과 과장이 되어 중요한 책임을 잘 수행한다는 칭찬받았을 때.

* Yale Medical School 병리과에서 vice president로 임명이 되어 research grant를 받고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을 때, 아직도 Yale 의과대학에서 professor emeritus로서 research를 할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 SNUCMAA of North America의 최초로 여자로서 president가 되어 serving leader로서 기여할수 있었을 때 등이지요.

이런 계기들로서 열심히 일하면 큰 공헌을 세울 수 있다는 교훈을 받았지요. 이것은 제 인생의 중요한 지침이었지요.

6. 의과대학에서 기억나는 두 가지:

(1) Reflection: 남학생 126명 중 여학생은 2명뿐이었지요. 우리 둘 다 남학생과 말도 안 하고 동기들과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에 와서 결혼 후 남편의 이해와 협조로 동기들과의 관계도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되어 잘 지내게 되었지요.

(2) 아주 슬펐던 순간은: 가장 아끼던 의과대학 유일한 여자친구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NYC의 The NY Hospital-Cornell Medical Center에서 레지던트 교육을 받는 때였는데 당시 SNUCM 기초 해부학교수로 계시던 그녀의 아버지인 Dr. Rha(전 학장 나세진 교수님)로부터 IV 수액 독성으로 인해 따님이 사망했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따님을 보내고 쓰신 그분의 편지에서 나에게 'splendid success' 하라고 부탁하셨지요. 저는 한동안 우울증에 빠져있었고 그 친구를 자주 꿈에서 보곤 했지요. 그때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어요.

7. 다시 태어나도 의사가 되고 싶은지? 반드시 의사가 아니라도 'serving leader'로서 인간의 삶에 또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저는 매년 TV로 방송되는 'CNN Heroes'를 항상 시청하면서 놀라움게도 여러 면에서 공헌하는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그런 기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명희 (66) 선배님



1. 졸업한 해인 1966년 군대를 안 가고 5년 동안 미국에서 인턴, 레지던트를 할 수 있다고 해서 50명을 선발하는데 뽑혀서 도미하게 되었습니다. 수중에 50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2. 집사람을 소개해 주어서 만났는데 첫눈에 들어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3. 주위 사람들이 본인의 성품이 의사다운 데가 있다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해서 부모님의 의사대로 의사가 무엇인지 잘 모르면서 그냥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조건은 환자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외과를 하려고 했는데 외과 레지던트 일 년차에 마취과 과장이 저를 어떻게 보았는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취과 선생에게 나를 소개를 해 줄 터이니 한번 만나보라고 하여서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대학 과장을 만났는데 저를 처음부터 너무도 좋아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냐?" 이런 식으로 저를 치켜 올리는데 제가 너무도 기분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해서 30명이 넘는 레지던트 반장이 되었고 마취전공 시험 합격은 물론 마취과 교수로 발령이 났어요. 일취월장이라고 하나요?

5. 사랑. 제 이름 LEE(Love, Everyone, Everyday)입니다. 성경을 다 읽어도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힘들었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한라산 꼭대기를 정복하고 밤늦게 내려왔을 때, 잠, 레지던트 일 년 차 중에 결핵 폐렴으로 6개월 요양을 했을 때, 6.25사변 때는 김해 시골에 있었는데 피난민들이 우리 학교를 점령했던 기억이 납니다. 보람된 경험은 제주도에서 한라산을 정복하고 서귀포가 가까운 시냇물에서 익사할 뻔한 어린이를 구출하고 잘 할 줄도 모르는 심폐 소생술을 하여서 살려서 그 애를 집으로 보낸 후 폭포 쪽으로 걸어가다가 500원을 주워서 점심을 사 먹은 기억이 납니다.

6. 전국 대학 바둑대회에서 3등으로 입상하고 트로피를 학장실로 보냈습니다. 배구팀 경기에서 우측 중앙으로 내려친 공이 성공한 순간, 여름 수학여행을 가서 이화여대 학생들 앞에서 군밤타령을 불러서 인기를 얻어서 일곱 명 여학생한테서 데이트 신청을 받았을 때.

4.19 때는 데모에 참여하고 끝난 후 걸어서 집으로 무사히 간 기억이 납니다.

1995년, 'COM Bubble' 때를 기억합니다. 저의 제안으로 66년 졸업 동기 14명이 만 불씩 모아서 Club 66를 결성하여 증권시장에 투자해서 300% 이상 올랐을 때 수익금을 이용하여 14부부를 라스베가스에서 3일 연휴를 보내는 비용과 일 인당 천 불씩 개인 비용을 나누어 주

8. 긍정적인 조언: 한마디로 let them identify who they are and define their life; self identification. 부모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자녀를 형성하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나치

고도 만 불씩 다시 투자했을 때, 그 소문을 듣고 20명이 더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십만 불 이상의 제2차 투자는 몇 년을 가지 못하고 거의 바닥을 치게 되어 Club 66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가장 보람된 성공적 경험과 부정적 경험이 겹친 사건이었습니다.

7. 와인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습니다. 버지니아는 와인을 생산하는 주에 속하고 300개의 와이너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중 10개의 와이너리를 방문했습니다.

8. 제가 야단을 안 맞고 자라서 그런지 저의 아이들에게 야단을 안쳤어요. 칠일도 없었고. 그것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낳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다 개성을 찾아서 하고 있으니까요. 다섯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자기 분야에서 뛰어나게 하고 있어요. 자랑같지만.. 이제 그만하겠어요.

9. 건강의 비결은 SSEEP입니다. 아직 패턴트는 신청 안 했지만.

Sun: 밖으로 나가세요. 비가 안 오면 매일.

Sleep: 7-9 시간 잘 주무시도록 하세요.

Exercise: 매일 30-60분 걷기.

Eating: 좋은 음식 적당양 섭취하기.

Purpose: 가족, 친구, 사회, 인류를 위한 목적이 있는 삶을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SSEEP은 한 단어로 읽으면 한국말로 아주 위험한 나쁜 말입니다. S.E.E.E.P으로 부탁드립니다.

담배는 몸에 안 좋다는 말을 듣고 일찍 끊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종교는 어머니가 불공을 드리셨지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의 누님이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 집에 갈 때마다 책상 앞에 꿇어앉아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너무도 평화스러워 보였어요. 미국에서 인턴을 할 때 한국에서 오신 미국 신부님이 저의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나를 부르는 병원 페이지(Paging)를 듣고 한국 의사인 것을 알고 반가워서 찾아와 나중에 같이 학생들 여름캠프에 갔었지요. 밤에 숙소로 가는 길에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을 보며 "지금 하느님을 느끼세요?" 하는 그의 질문에 깜짝 놀란 적이 있지요. 외과의사 한 분과 수녀님과 같이 점심을 먹다가 제가 천주교인이 될 가능성을 보셨는지 몬시뇰을 찾아가라고해서 그분께 제가 하느님을 80-90%정도만 믿는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나도 그래" 하셔서 당장에 내 마음을 결정하고 일주일만에 영세를 받았어요. 지금은 소위 명상공동체의 회장이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제가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0. 코로나에 걸렸었는데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이 이야기들이 조금 과장된 야닌가 싶습니다.

편집위원회, 미주동창회에 드리고 싶은 말은 '사랑'입니다. 사랑!!!.

칭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계 보살피는 grandparents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9. 건강비법: 활동적이고 바쁜 생활을 하며 영양 음식을 잘 섭취하고 운동을 많이 하면 건강을 유지 (다음면에 계속)



박대용(17, 내과) 동문
Chicago Cook County Hospital



1. 어떤 계기로 미국에서 레지던트 수련을 받기로 결정하셨나요?

선교사이신 부모님을 따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필리핀에서 살다가 의대에 입학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이질감이 커서 외국으로 다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과와 본과 생활을 거치며 한국 생활에 적응하게 되면서 점차 한국에, 이왕이면 본원에 남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본 3 때 한 달간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로체스터 대학병원 내과에서 선택실습을 돌면서 다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는 수직적인 관계가 전혀 없이 언제든지 학생들과 레지던트들이 두려움 없이 질문을 했습니다. 의학교육도 주입식 강의보다는 실습과 실질적인 임상경험에 더 많은 비중을 두었습니다.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제가 의대에서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술 문화가 없었습니다. 자발적인 학습을 유도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인종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에 관해 배우고 치료할 수 있단니, 미국에서 수련 받는 것에 대한 갈망이 크게 자라났습니다. 게다가 중증 환자와 바이탈을 다루는 필수 진료과들이 한국에서는 턱없이 낮은 수가와 과중한 업무로 장기적인 비인기과가 되고 있었습니다. 의료 체계가 왜곡된 현실도 도미를 결심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2. 레지던시 매치 준비 과정은 어떠하였나요?

이후 미국에서의 임상실습을 더 많이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도적으로 졸업 후에는 임상실습을 할 수가 없거든요. 로체스터 대학병원에 다녀온 후 본

〈전면에서 계속〉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생활에 계속 참여하면서 감사(cultivating gratitude)하고 마음에 평화를 갖도록 meditation and prayer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루라도 happy and valuable time으로 지내는 비결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지요. 절대로 자신을 senior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예요.

10. Difficulty with Corona Pandemics: 노인들이 많이 사망하니까 걱정이 되었으나 take all precautions 하면서 다행히 안 걸리고 지났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좋은 점 하나는 모든 회의와 컨퍼런스가 zoom을 통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뛰어다닐 필요가 적어 집에서나 office에서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마스크 습관은 감기나 다른 질병에 걸리지

4 때에는 피츠버그 대학병원과 시카고 대학병원에서 임상실습을 하였습니다. 실습 중에 틈틈이 USMLE Step 2 CS를 공부하여 시험을 보고 귀국하였고, 나머지 Step 1, 2CK, 3은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는 3년간 완료하였습니다. 학생때부터 내과를 마음에 두고 있던터라 레지던시 매치는 H-1B 비자를 지원해주는 병원 중 100여군데를 골라 지원했습니다.

현재 제가 수련을 받고 있는 시카고 쿡 카운티 병원은 수련 환경이 우수하고 펠로우십 매치율이 높으며, 의료선교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제 경우에는 소외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공공병원이라는 점 등 여러가지가 두루 좋아 선택하였습니다. 시카고에는 한국 직항도 있고 한인 인구가 많은 대도시라 편리하기도 했습니다.

3. 내과를 전공하게 된 계기는요?

다양한 질병군과 바이탈을 다루고, 여러 분과가 있는 내과가 가장 매력적으로 느껴져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하여 진료하는 것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실습을 돌아보니 외과 계열은 일하는 분위기가 저와는 맞지 않을 뿐더러 성적도 외과 계열 보다는 내과 계열이 더 좋게 나왔습니다. 비보험진료를 많이 하는 과들도 별로 흥미롭지 않았습니 다. 언젠가부터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 바이탈을 다루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거나 미래의 제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진 위중한 환자를 살려내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현재는 순환기내과 펠로우쉽에 지원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4. 미국에 오자마자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일하며 코비드 판데믹을 어떻게 통과하셨는지?

제가 레지던트를 시작할 무렵 한국은 선진 방역 체계로 감염률이 낮았던 반면 미국은 판데믹 상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도 공보의로 일하면서 코로나 진료 일선에 있었기에 제 입장에서는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걱정되거나 미국으로 오겠다는 결심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 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코로나 mRNA 백신을 무료로 2회 맞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오리엔테이션 때 마스크 착용세 평가를 거쳐 저에게 가장 알맞은 N95 마스크를 제공받았고요. PPE 복장 훈련 후 코로나 환자를 볼 때마다 PPE 착용을 반복했습니다. 저희 내과 프로그램에서는 코로나에 걸릴 경우 전공의들을 10일동안 집에서 쉬게 해주었고, 이 열흘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12일의 병가 기간에서 차감하지 않았습니 다. 코로나가 진정될 때까지는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었고, 초기에는 강의도 온라인으로만 진행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꼼꼼히 N95 마스크를 잘 착용하여 현재까지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 다.

5. 요즘 병원 생활은 어때요?

대개 새벽 5시 반 정도에 기상해서 6시 50분까지 출근하고, 오후 5-6시에 퇴근

않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1. Words to the publication committee; 시계탑 출판 committee에 참여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 편집위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Sigetop의 내용과 질이 옛날에 비하여 크게 향상이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12. Words to Alumni: Be proud of being a SNUCMAA Member. 미주 동창회가 앞으로 더 발전하고 영구적인 조직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charity activity는 미주동창회의 mission입니다. 제가 시작을 하였으나 후배님들께서 앞으로 좀 더 charity activity의 범위를 넓히고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게 되시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합니다. 야간 당직일 경우 오후 5시에 출근해서 스케줄에 따라 다음날 오전 8시 혹은 오후 1시에 퇴근합니다. 수련하면서 미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에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실습 돌았던 대학 병원들이 다 좋은 곳이어서 그런지 영세한 카운티 병원은 다른 점이 많았습니다. 일인실도 적고, 환자식도 메뉴가 제한적이라 환자만족도가 떨어졌고, 검사 오더를 내리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늘 인력이 모자라서 진료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레지던트의 삶도 아주 편하지만은 않았습니 다. 로테이션 중 아픈 환자가 너무 많아서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제 때 못 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이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 문화, 수평적인 업무 관계 등은 한국보다 우수하다고 느껴집니다. 저희 병원은 한 연차에 45명이나 되는 큰 수련 프로그램인데, 세계 각국에서 온 동료들과 친해지면서 즐겁게 수련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팀에 배정된 동료들과는 정말 친합니다. 필리핀에 살면서 나름 여러 나라 사람들을 만나봤다고 생각했었는데, 여기는 그 이상의 다인종 다문화환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라 이름만 알던 시리아, 파키스탄, 레바논, 가나 등지에서 온 동료 레지던트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6. 미국살이, 시카고 생활은 어떤가요?

미국으로 오게 된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수련을 받고 있는 동기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보다 여유롭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한 로테이션은 9시에 출근하고 2-3시면 퇴근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 수 있고, 취미 활동도 하고 가족, 친구들과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어텐딩들과 교수님들도 전공의들을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십니다. 먼저 농담을 거시고, 같이 웃고 수다 떨 수 있으니 함께 일하는 것이 편하고 즐겁습니다. 제가 실수하거나 잘 하지 못하여도 나무라기 보다는 배울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십니다. 한국에서는 교수님들이 무서워서 감히 말도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으니 소심해지거나 두려움에 휩싸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여겨집니다. 그 밖에, 한국은 좁고 빠르고 편리하다면, 미국은 넓고 느리고 불편하지만 여유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싼 것이 미국에서는 비싼 것도 흥미롭습니다. 얼마 전에 등기우편을 부치려고 우체국에 갔는데, A4용지 하나를 보내는데 20불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여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별별 것에 수수료가 붙어요. 식당에 가면 한국에서는 1-3만원이면 먹을 것도 여기에서는 봉사료까지 내야 하니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주말이나 휴일에는 뭐하면서 보내세요?

휴식을 취하여 체력을 보충하고, 밀려있던 연구들도 진행하고, 아내와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알차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의학통계 전공 박사인데, 아내도 시카고 생활이 굉장히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아파트 로비에 탁구대가 있어서 탁구도 치고, 시카고 맛집들도 가보고, 집 근처 한인 교회에 가서 어울립니다. 클래식 음악을 좋아해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에도 자주 갑니다. 제가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임상연구 석사 과정을 밟고 있어서 학생표를 저렴하게 구해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와서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세계 3대 오케스트라임을 알게 되었는데, 실제로 들어보니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특히 지휘자 리카르도 무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힐러리 한, 랑랑, 조성진, 요요마 등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오케스트라와 협연도 자주 하여 다른 곳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할 기회들을 흔하게 맞

이하는 것 같습니다. 시카고에 오시면 주말에 꼭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방문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 레지던트 중에 석사과정에 등록하면 학비를 약 70퍼센트나 할인해주니 후배님들 참고하세요. 레지던트 일이 바빠서 대학원을 병행하기 피곤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 만큼 많이 배우고 수업도 일주일에 1회만 있기 때문에 할 만합니다. 수강생들도 대부분 의사들이라 교수님들께서 지각이나 당직 스케줄 때문에 빠지는 것에 대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니다.

8. 여행가고 싶은 곳은 어디인가요?

시간과 돈이 된다면 알래스카, 하와이와 그랜드 캐년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자연 환경이 색다른 곳이어서 궁금합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수련 중이라 몸도 마음도 피곤해서인지 돌아다니는 여행보다는 만끽하고 싶 수 있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한편, 한국과 필리핀에 계신 부모님, 조부모님, 여동생, 친척, 친구들이 많이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거의 매일 카톡, 페이스북, 영상통화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지만 직접 만나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한국에 자주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 새해 소망이나 계획은요?

감사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지금껏 모든 것을 제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에는 우수한 교육 및 연구 환경을 제공해 주는 순환기내과 펠로우쉽에 매칭되고 싶은 바람이 있고, 수속 중인 미국 영주권도 빠른 시일 내에 취득하고 싶습니다.

저의 꿈은 제 분야에서 알려지고, 제자들을 키우고, 학술지도 창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이신 아버지의 뜻을 이어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미국에서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 친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기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의료 선교 재단도 만들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제자들과 다 함께 아프리카에 병원을 짓고 같이 일하며 선진 의료 시술도 자력으로 해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시설이 없고 기술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저개발국의 환자들이 자기 나라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10. USMLE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지금 시점에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꿈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후배님들께 말해주고 싶습니다. USMLE를 준비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정말 많이 들었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갖 2년 남짓 지난 지금 되돌아보면 모두 추억으로 남아 있고, 미국에 오기를 정말 잘 했다는 생각만 남습니다. 학생 때 미국 실습을 최대한 많이 해 놓으시기를 조언해 드리고 싶습니다. USMLE야 졸업 후에도 할 수 있지만, 실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력서도 미리 미리 그리고 꾸준히 채우시고요. 레지던시 매치가 한 번에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결국에는 붙는 것 같습니다. 재수 삼수 이상 해야 했던 동료들도 많이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꿈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결국 해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빛까지 내어가며 준비했거나 연구실에 들어가서 수년간 일을 하다가 레지던시에 들어온 친구들도 많습니다. 꿈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노력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끝은 참대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회의 땅, 그곳이 미국입니다.

(박은경 편집위원)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피워내는 우리 동문들의 향기에 늘 감탄합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힘

서윤석(68, 버지니아)

미주 한글학교교직원연합회(김선화 회장)의 어린이 글짓기 대회에서 이것이 이번 백일장 제목이다. 수도 워싱턴 지역에서는 부모들의 노력과 주미 한국대사관 하의 교육원, 영사관의 협조와 여러 한글학교, 각 종교단체, 문인회가 협조하여 이 행사를 주관한다. 교포 어린이를 위하여 매년 두 번씩 치르는데 봄철에는 시 낭송대회를 실시하고 가을에는 글짓기 대회를 한다. 청소년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각 도시마다 규모가 다른 비슷한 행사가 있겠지만 수도 워싱턴 지역에서는 지난주(10월 29일) 행사에 약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백일장의 경우는 원고지에 7-장 이상의 분량을 쓰지만 다른 레벨에서는 편지 쓰기, 글쓰기는 여러 학년별로 구분에 따라서 써서 제출했다. 글의 내용이 독자에게 얼마나 감동적으로 느끼게 하는가, 띄어쓰기, 철자법이 정확한가, 글의 시작과 본문, 결론을 짓는 기본 흐름이 잘 되었는가를 심사 기준으로 검사하고 한 작품을 여러 심사위원들이 원고를 돌려보면서 점수를 적는다. 대회 관계자는 모든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해서 나누면 그 학생들의 평균점이 나오게 되는데 그 평균 점수로 등수가 결정된다. 백일장 장원상에 정예인이라는 학생이 뽑혔다. 총 평균점이 70점 이상이면 최소한 장려상, 더 좋으면 우수상으로 상을 수여했다. 이번에 응모자 가운데 상을 못 받았어도 영어권의 어린이들에게는 외국어라고 할 수 있는 한글로 이렇게 글을 써서 낼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장한 일이다. 이민 생활에서 자식 교육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부모의 모습과 열심히 따라 참여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진지하고 열성적이다.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분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필자가 자식들을 키울 때 미처 못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 그 얼마나 훌륭한가!

1492년 컬럼버스가 마대륙을 발견하기 46년 전인 1446년, 즉 세종 28년에 반포된 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이다. 그 후 수백 년 한문과 성리학이 판치던 시절에 언문으로 무시당하다가 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독립을 위하여 애쓰던 사회장으로 외국인 묘지에 87세에 묻힌 호머 할버트(Homer Hulbert, 1864-1949)선교사 님과 고종시대의 그의 제자인 주시경(1876-1914) 님에 의하여 한글은 비로서 보편적으로 가로쓰기 등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정리되었다. 갑신정변의 실패 후 삼척의 멸함을 당했다가 망명 10년 후 미국 시민으로 귀국한 서재필 박사(1864-1951)가 사재를 털어서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신문(1896)을 발행할 때 띄어쓰기도 시작했다고 한다. 이인직의 '혈의 누', 이광수 소설 '무정', 최남선의 시 '해에게 소년에게' 등 여러 문학작품이 한글로 창작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글이 비로서 우리 일상 문화활동에 밀거름이 되었다. 쉽게 배우고 읽어서 한글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소통 수단이 되었다. 이번에 심사를 하면서 이민 온 한국인의 어린이들 글 중에 백일장의 주제인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근래에 신속히 발전할 수 있었던 큰 힘 중의 하나가 한글이라고 지적한 학생이 있는지 눈여겨보았다. 566년 전의 창조를 위하여 쏟았던 세종대왕의 열정과 불쌍한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그 리더십이 바로 오늘날 한국을 발전할 수 있었던 큰 힘이 아니었겠는가 하며 생각한다. 특히 훈민정음 창조 후에도 명나라의 눈치를 보던 최항의 무리들 같은

신하들을 설득하고 필요에 의하여 처벌했다가도 용서했던 당시 기록을 우리는 이조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방 후 6.25 를 겪고 나서 정부에서 차츰 정세가 안정이 되자 1956년 10월 9일을 한글의 날로 정할 때 최규남 문교부 장관 주관하에 발족된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번역한 세종대왕 장헌 실록에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있다. 다음은 1446년 9월 집현전 대제학이었던 정인지(1396-1478)가 쓴 기록이다.

“재해년 겨울에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처음으로 만들어 예를 간략하게 들어보이고 명칭을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고 하였다. 물건의 형상을 본떠서 글자는 고전篆을 모방하고, 소리에 인하여 음(音)은 칠조 음양에 합하여 천, 지, 인 삼극의 뜻과 음양 이기의 정묘함이 구비 포괄되지 않은 것이 없어서, 28자로서 전환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다.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글을 해석하면 그 뜻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송사를 청단하면 그 실정을 알아낼 수 있게 된다. 자운(字韻)은 청탁(淸濁)을 능히 분별할 수가 있고, 악가(樂歌)는 율려(律呂)가 능히 화합할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여 구비하지 않은 적이 없고 어디를 가더라도 통하지 않은 곳이 없어서, 비록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이든 지, 닭의 울음소리나 개 짖는 소리까지도 모두 표현해 쓸 수가 있게 되었다. 마침내 해석을 상세히 하여 여러 사람에게 이해하라고 명하시니, 이제 신(臣)이 집현전 응교 최항, 부교리 박팽년과 신숙주, 수찬 성삼문, 돈녕부 주부 강희안, 행집현전 부수찬 이계, 이선로 등과 더불어 삼가 모든 해석과 법례를 지어 그 경계(梗概)를 서술하여, 이를 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어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연원(淵源)의 정밀한 뜻이 오묘한 것은 신들이 능히 발휘할 수 없는 바이다. 삼가 생각하옵건대, 우리 전하께서는 하늘에서 낳으신 성인(聖人)으로서 제도와 시설이 백대의 제왕보다 뛰어나시어, 정음(正音)의 제작은 전대의 것을 본받은 바도 없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지극한 이치가 닿지 않는 곳이 없으므로 인간 행위의 사심으로 된 것이 아니다. 대체로 동방에 나라가 있는 지가 오래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는 도리를 깨달아 이것을 실지로 시행하여 성공시키는 큰 지혜는 대개 오늘날에 기다리고 있을 것인저” 하다.

*세종 장헌 대왕 실록 제113권 28년(1446) 9월, 명나라 正統 11년



이런 귀중한 우리 한글을 실용하지 못하고 우리 민족은 불행하게도 나라마저 1910년에 주권을 일본에 빼앗겼다. 제국주의 일본이 2차대전을 치르면서 강요된 참서 개명과 한국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강행했을 때 한글도 사라질 위기를 맞았다. 일본어만을 사용해야 되는 참으로 처참한 시점이었다. 그 한 예로 김상필 저 <오늘을 사는 생명>을 참고하면 1945년 함경남도 흥원 출신 함흥 영생여

자고등보통학교 학생인 박영희의 일기장으로 시작한 서울의 <조선어학회 사건>은 한글말살을 시도한 위협이었다. 다행히 1945년 해방이 되어 풀려날 때까지 이극로, 최현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김도연, 이인 님을 비롯하여 많은 한글학자들이 형무소에 감금되고 복역하고 조사를 받고 시달렸다. 이런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는 이런 분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보존된 것이 우리 한글임을 기억하여야 한다.

이번에 글짓기의 주 제목으로 워싱턴 문인회(김미영 시인, 정해선 시인)에서 제시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힘'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566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이 현재의 컴퓨터와 아이폰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얼마나 미래를 내다본 훌륭한 과학적이고 언어학적인 발명이냐! 이번에 참여한 어린이들의 글 속에서 이런 내용을 찾아보려는 것은 다소 지나친 욕심이었지만 그래도 한두 명이 비슷한 글을 썼고 그중 한 명이 장원에 뽑혔다. 대다수의 학생들은 흔히 보는 BTS 자람, 싸이 춤, 한국 음식 자람, 한국 의상 자람, 지하철, 빌딩 자람, 가옥 자람들이었다. 이 백일장의 주 제목과는 관계가 없이 학교와 부모한테서 평소 이 번 대회를 위하여 배운 일상적인 내용인 것 같았으며 주제에 대한 정확한 답은 못 되었음이 아쉽다.

서울 광화문에 세종대왕의 동상이 세워졌고, 세종문화회관, 세종 기념사업회(전 박종국 회장), 세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문화 단체가 국내외로 여러 곳에 있다. 영어로 훈민정음 소개 책을 발간한 George Washington 대학 언어학자 김영기 교수(소설가 한무숙 따님)가 있고, 시카고 세종문화회(75년 졸업 Dr. Lucy Park 박종희 Illinois 의대 교수) 영어 평시조 짓기 행사를 하는 교포 단체도 있어서 화제가 되기도 한다.



한글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배우고 있다 그중 한 예로 지난 한글의 날 이곳 워싱턴 시낭송 모임에 참여한 전 주한 미국대사(2008-2012) Kathleen Stephens 심은경은 고급스러운 한국말로 유창하게 축사를 하고 노산 이은상 시인의 시 '나도 같이 시를 쓴다' 'I will Write a Poem too'를 한, 영으로 낭송하고 한글로 자신의 책을 발간한 것을 알려 우리들을 놀라게 했다.

대한민국은 6.25사변 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으로 시작하여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현 윤석열 정부에까지 오게 되었다. 비록 독재와 군부, 우파, 좌파의 갈등을 거치고 무서

운 6.25 전쟁을 겪으면서도 목숨의 희생은 많았지만 결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피와 땀을 흘리면서도 남한에서라도 5천 년 우리 역사에 처음 배고픔을 해결했다. 또 경제력이 세계 10대 국으로 성장했다. 자랑스러운 우리 운동선수들의 옷과 모자에 한글로 쓰인 회사 광고들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세계 대도시의 거리에 한글로 쓰인 간판도 보이고 전통 음악, 영화, 예술 방면에서도 한국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또 아리랑이 소개되는 기적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현재의 문예부흥을 누릴 수 있는 것은 566년 전 세종 시대에 창조된 한글의 힘이 있어서 가능하지 않았을까.

며칠 후 이 글짓기 대회에 수상한 어린이들에게 심사평을 할 시간이 있어서 나는 설명했다. 첫째 미국에서 살면서 아이들이 영어를 잘 배우고 또 제2 언어 한글도 배우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과 같다. 둘째로 훗날 성장하여 무슨 직업을 갖더라도 이웃을 위하여 그들의 불편한 점, 아픈 점을 보살피는 마음을 가져라. 셋째 훗날 사업가, 의사, 변호사, 은행가, 예술가, 문학가, 그 무엇이 되든지 자신의 이웃을 위하여 뜻한 바를 정열적으로 연구하고 창조하는 세종대왕과 같은 인물로 자라나기를 당부했다. 세종대왕은 한글창조 뿐만 아니라 농업, 역사, 음악, 과학 등 당시 우리나라 자주문화의 문예부흥시대를 이룩한 주인공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행사에 참가한 어린이 모두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매년 10월 9일 한글의 날에 부르는 최현배 작사, 박태현 작곡의 노래를 1절만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한글의 날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
긴 역사 오랜 전통 지녀온 겨레
거룩한 세종대왕 한글을 펴시니
새 세상 밝혀-주는 해가-돋았네
한글은 우리-자람 문화의 터전
이 글로 이-나라의 힘을 기르자



*이 글은 2022년 11월 19일 Westin Hotel, Virginia에서 열렸던 제8회 팔봉문학상 수상 소견으로 발표했음. 사진은 좌로부터 노세웅 시인, 필자, 김팔봉(김기진) 소설가의 따님 94세 김복희 전 이화여자대학교 음대 성악과 교수, 신옥식 워싱턴 운동주문학회장

농담 골목

2023년의 해(음력)는 계묘년으로 토끼띠가 됩니다. 토끼의 IQ가 30-50 정도로 생각보다 훨씬 똑똑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토끼의 반대말 찾기를 통해서 자신의 IQ를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덕송)

산토끼의 반대말 (IQ)
 집 토끼 (50) / 바다 토끼 (80) / 죽은 토끼(100) / 관 토끼 (120)
 끼토산 (150) / 알카리 토끼 (200)

Alphabet 유머
 기본 잡질 때 (A) / 먹구름 뒤에 (B) / 수박 속에 든 것 (C)
 몸이 들어가면 가려운 것 (E) / 밤말을 엿듣는 것 (G) / 코가 간지러우면 (H)
 임신 후 낳는 것 (I) / 잘난척 할 때 (M) 기발한 생각이 날때 (O)
 모기의 밤 (P) / 시작을 알리는 싸인 (Q) / 닭이 낳는 것 (R)
 영국사람이 즐겨 마시는 것 (T) / 너, 당신을 뜻하는 단어 (U)

A comic says funny things -- 코미디는 재미있는 것을 말하지만
 A comedian says things funny -- 코미디안은 말을 재미있게 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애도(哀悼)의 여러 모습



조이스(Joyce), 지금

“아직도 자주 생각이 나지요 그 애 생각이 나면 나 자신을 꺼안아요. 전처럼 힘들지 않아요 남편이랑 그 애 자랄 때 얘기를 하면 위로가 돼요. 처음엔 서로 얘기를 못했지요. 돌이서 도망치듯 집을 나갑니다. 식당엘 가면 서로에게 화라도 난 듯이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나누지도 않고 허겁지겁 먹기만 했죠. 눈물만 흘렸죠. 순간적으로 왜 눈물이 흐르는 거지? 한 적도 있습니다. 흐르는 눈물과 그 애의 죽음이 연결이 안 되는 순간까지 있었어요. 눈물은 눈물대로 스스로의 의지가 있는 듯 그냥 흘러내리던 거였어요. 자녀분들은? 家族歷을 묻는 간호사의 질문에 도 이제는 자녀분들이란 단어 때문에 주책없이 주르륵 눈물을 흘리는 대신 딸 하나 있었는데 4년 전에 죽었다고 답답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애 잃은 엄마라는 수치심이 아주 가셔진 건 아니지만 눈물을 내 비치진 않았지요”

조이스, 4년 전

외팔 줄리가 죽은 직후 조이스는 남편과 같이 신부님을 뵈러 갔다. 남편이 하나님의 대리인, 신부님, 보고 대들기라도 할 듯 물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it is not right!”) 딸을 데려 가신 거, 이건 아니다 라는 말이다. 하느님에게 화가 치민다고 했다.

딸을 잃고 “하느님에게 화가 치미는” 이 부부의 심경을 C S Lewis는 Grief Observed (관찰된 애도)에서 보다 통렬하게 직설적으로 진술한다. 아내를 잃은 직후다.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은 면전에서 문을 광 닫고 빗장을, 이어 이중 빗장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곤 침묵. 창문엔 모두 불이 꺼져 있었다. 빈 집일지도 모른다. 누가 살기는 했었나?”

하느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기에 망정이지 혹 계셨더라면 먹살잡이라도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세다. 하느님의 대리인 신부님에게 대들 듯 따지던 조이스 부부보다 그 기세가 더 등등하다. “사랑하는 이의 상실에 의한 비통을 말로 표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 이기에 조이스 부부와 작가(C.S Lewis)는 이 같은 격한 행동을 감정을 표출한 건가?

줄리, 23살짜리 딸, 출산 시 뇌 손상을 입어 부실했던 딸, 항상 곁에 두고 돌보던, 돌보아야 했던 외딸이 급작스레 죽었다. 조이스 부부는 제정신이 아니다. 눈물은 쏟아진다. 쏟아진다는 말이 맞다. 주체할 수 없게 쏟아진다.

딱히 갈 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차를 몰다가 매사추세츠 보스턴 가는 길가 한적한 타운 어떤 교회에 들어갔다. 마침 시작한 미사에 참석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오히려 맘이 가벼웠다. 그러곤 한 달에 한번 혹은 두 달에 한번은 꼭 갔다. 이름 없는 조그마한 교회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편했다. 별거벗은 느낌, 사람들이 뻔히 드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안 들어 마음이 놓였다.

혼자 있기가 무서웠다. 언제는 혼자 있고 싶었고 언제는 무서웠다. 서포트 그룹들을 전전했지만 다른 이들의 사연은 기실 들리지 않았다

우리들에게는 사랑하는 힘, 리비도 라는 것이 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로만 향하던 리비도(primary narcissism 기본 自己愛)는 점차 대상으로 옮겨간다.

김창남(69, 대뉴욕)

한 대상에 고착된 리비도는 대상이 사라질 때 유리되어 자유스러워진다. “대상으로부터 리비도가 유리되어 자유로워지는 게 왜 그리 힘든 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스터리”라고 프로이트는 애도와 우울(mourning and melancholia)이란 논문에서 말하고 있다. 왜 하나님에게 화가 치밀 정도로 격한 감정이 되는지, 하나님에 때문에 이중 빗장을 치는 기분이 되는지는 미스터리라는 거다

끼사 고타미 (Kisa Gotami), 2500여년 전

죽은 아이를 품고 슬픔에 잠겨 살려내라 울부짖으며 거리를 헤매는 끼사 고타미. 흘러넘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그녀, 모두들 가까이하기를 꺼려 한다. 아무도 그 소용돌이를 견뎌낼 수 없다. 어느 노인 한 분, 측은한 눈길로 “보통 사람이 어찌 죽은 애를 살릴 수 있겠나! 붓다라는 이가 아주 용하시다니 한번 가보시게. 기원정사라는 데 계신다 하네.” 붓다, 끼사 고타미의 비통을, 비통의 내력을 묵묵히 듣는다. 내력의 골자, ‘이건 아닙니다!’를 파악한다. 그래, 방법이 없진 않지. 마을에 가서 겨자씨 한 톨만 얻어오렴. 내가 무슨 일을 해 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단, 명심해 듣거라, 그 겨자씨는 사람이 죽어 나간 적이 없는 집의 겨자씨여야 한다.

감정의 소용돌이는 知的인 논리가 범접할 영역이 아니라는 건 상식이다. “사랑하는 이의 상실에 의한 비통을 말로 표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며 위로의 말을 찾는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프로이트의 말이다. 그래, 속수무책의 정신과 의사들은 그저 환자의 하는 말만 따라 들을 수밖에 없는 거다. 소용돌이의 강도를 밀도를 느끼며, 느껴보려 노력하며 소위 감정언어학이 일어나기를 빌며 될수록 비판적인 언사, 상처에 조금 뿌리는 말은 삼가며 무심결이라도 이래라저래라! 선부른 훈수는 나오지 말기를 빌며 멀거니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조심스레 집단 동료 지원요법 peer support group을 권해 볼 뿐이다. 홀아비 마음 과부가 안다고 자식 잃은 사람의 마음은 자식을 잃은 이가 그중 잘 알지 않겠느냐고.

붓다여, 누굴 놀리시는 겁니까? 끼사 고타미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건 붓다의 소위 법력(法力) 때문이었으리라. 붓다를 보기도 전에 고타미에겐 이미 전이(transference)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다. 하여, 고타미는 붓다를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위치시켰다는 거다. 또, 붓다가 누군가? 중생의 신음 소리를 듣는 게 전문인 관세음보살을 제자로 둔 처지니 당신 자신은 얼마나 잘 들을 수 있었겠는가?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며 사연을 얘기한 후 겨자씨를 달라 한다. 겨자씨야 한 톨 아니라 한 말이라도 못 주겠나. 현대 우리 집 건 안되겠지? 내 손녀 죽은 지 반년 밖에 안되니 어떡하지? 얼마나 슬프던지. 아직도 울고 있다네. 우리 바깥 양반 돌아가신 지 일주기구만. 우리 딸, 내 남편, 우리 조카 ...

겨자씨 한 개 얻으러 가가호호 찾다니며 자기의 사연을 되풀이한다. 즉 요즘 말로 IOP Intensive Outpatient therapy (집중 외래요법)를 받은 거다. 상담이 일주일 3회 이상이면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IOP의 조건이 충족된다. 집중 상담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를 스스로의 사연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정신없이 거리를 헤매 때와는 다른 수준이 되었다. 도저히 다룰 수 없던 막막하던 감정들이 이야기

를 반복하는 중 정리되기 시작한다. 속에 잠겼던 슬픔들은 통풍이 되어 건조된다. 장마철 빨래처럼 퀴퀴하던 냄새 어느새 가시어진다. 빨래만 말린 게 아니다. 집집마다 겨자씨를 주지 못하는 사연들을 듣게 된다. 즉 동료 지원요법 (peer support therapy)이란 걸 받은 거다. 아하, 애를 잃은 게 나만이 아니구나 하는 뻔한 사실이, 생경한 사실의 지위를 넘어서, 하나의 자각으로써 스름스름 스며 들기 시작한다. 단지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 통찰이 안에 파리를 틀고 앉아 있기 시작한 거다. 드디어 화장장에 애를 두고 올 수 있었다. 붓다한테 가 자초지종을 얘기한다. 겨자씨를 얻었답니다.

아무렴, 그렇지, 고타미야, 붓다는 법문을 하신다. 불사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백 년을 사는 것보다 불사의 진리를 보면서 하루를 사는 것이 낫다. 끼사고타미는 붓다의 가르침에 귀의한다.

다시 조이스

이건 아닙니다 의 조이스. 悲哀지원모임(grief support group)에 다니고 나서부터 지내기가 쉬워지는 걸 미미하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붓다를 향해 일었던 고타미의 전이는 조이스와 정신과 의사(또 심리상담사) 사이엔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의 법력은 태도 없이 미미,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리에 위치시킬 수가 없었다. 그저, 달래려고 허망하게 판에 박은 말만 되풀이하는 무력한 존재들이었던 걸 어이하랴. 아들 둘이 총 맞아 죽은 엄마. 교통사고로 외아들을 잃은 엄마, 마약중독으로 아들과 딸을 삼 년 터울로 잃은 아버지 등을 만난다. 그저 그러려니 귓전으로 흘러버리던 그들의 슬픔이, 감히 조이스의 문턱을 못 넘던 다른 이들의 슬픔이 이젠 가슴에 와닿는다. 감정이입에 성공한 거다. “제가 그 사람들의 슬픔을 알 수 있게 되며 그 사람들도 제 슬픔을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붓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위임했던 대화 요법, 동료 지원 요법(per support)을 우리 조이스도 고스란히 거친 거다. 끼사 고타미처럼 조이스”도 나아진다, 지내기가 쉬워진다.

다시, 끼사 고타미 (아직 젊은)

고타미가 살던 시절 인도의 숲은 명상의 장소였고 또한 유혹의 장소였다. 수행인들은 수행을 위해 숲을 찾고 수행인들을 유혹하려 여인네들이 찾는다. 凡과 聖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붓다의 제자가 된 고타미, 어느 날 수행하러 숲으로 간다. 악마가 나타난다.

“그대 아들을 잃어버리고 홀로 슬퍼하는 얼굴을 하고 있는가? 외롭게 숲 속 깊이 들어와 흑시 남자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행한답시고 남정네 찾아 숲에 온 게 아니냐는 악마의 악의에 찬 물음이다. 아

니 아직 피가 서걱이던 고타미의 내적 갈등,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이 악마의 입으로 구체화된 거다. 정리 해고되어 무의식으로 가라앉았던 것들이 되돌아온 거다. 고타미의 해결 방법은?

“언제나 자식을 잃은 어머니도 아니고 남자도 이미 지난 일이네. 나는 슬퍼하지 않고 울지 않으니 벗이여, 그대를 두려워하지 않네

모든 환락은 부서졌고 어두운 존재의 다발은 파괴되었으니 죽음의 군대에 승리하여 속세의 번뇌 없이 나는 살아가네.”

고타미의 내적 갈등, 그 극복의 과정이 악마와의 대화로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본능의 충동과 깨달음에의 염원이 충돌한다. 어찌 닭이 꿩의 자리를 대리할 수 있으랴 만 그래도 꿩이 없을 땐 닭이다. 충동의 입장에서선 조금 아쉽기는 한 이 거래를, 양보해, 꿩 대신 닭을 정신과에선 승화라 한다. 고타미는 내적 갈등을 깨달음으로 승화시킨 거다. “모든 환락은 부서졌지만 속세의 번뇌는 없이” 살고 있다.

린다, 사십년 후

린다는 지난 두어주 몸이 그리 좋지 않다. 해마다 이 무렵이 되면 사지도 육신 거리고 매복해 있던 슬픔이, 슬픔도 아니고 뭐가 뭔지 모를 감정 상태가 게릴라처럼 습격해 온다. 막내아들 케빈이 폐성유증으로 죽은 게 사십년 전 십일월이다. 그래, 애도는 겨자씨 하나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끈질기게 우릴 따라붙는다. 다른 애들은 컸고 이젠 손녀도 사춘기로 진입 더 이상 할머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환락을 다 부숴버리지도 않았고 속세의 번뇌도 다 겪으면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선 내 누이(서정주)같은 린다는 케빈의 게릴라식 습격을 기다리고 즐기고 있다. 사십년 전 죽은 열 살 짜리 케빈과의 육신거리는 만남이 기다려진다. 육신 거리는 몸은 어린 케빈이 떼쓰는 것 같아 오히려 즐겁다.

글을 마치며

조이스와 끼사고타미, 그리고 린다, 각기 애도의 다른 시기를 각자의 방법으로 살고 있다. 조이스는 겨자씨가 겨우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 끼사고타미는 갈등을 막 벗어나고 있는 시기, 린다는, 칠십세의 린다는 가끔 몸이 육신거리지만 케빈이 와서 즐겁다. 엄마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아프고 기쁘다. 그렇다고 눈가가 젖어오지 않는 건 아니다. 그렇다. 우리의 슬픔이란,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결국엔 자연스럽게 소진하고 만다 (1917)고 했던 프로이트도 나중엔(2013) 슬픔의 끊임 없음 (endlessness of grieving)을 얘기한다.

시계탑 1월호 편집회 초록



2023년 1월 14일 오후 1시, 아직도 익숙하지 못한 Zoom으로 어렵게 시작했다. 서량, 서윤석, 박은경, 제이미 김 사무장, 황창근 사장이 참가했고 여행 중이라 바쁜 서귀숙 위원은 많은 원고 수정을 Internet으로 보내왔다.

충분한 양의 원고가 들어왔고 지면 관계로 길이가 길고 많은 사진이 포함된 흥건(70)동문의 원고는 나누어 내기로 했다. 지난주에 Utah로 이사한 박은경 위원의 10문 10답 대담 시리즈에 나온 박대용 동문은 2017년 졸업생이다. 노용면 55년 졸업 편집위원님과 62년 차이가 나는 후배이다.

서울 동창회가 새로 발행한 회원 명부가 2022년 말부터 배부되고 있다. 미주에서는 38차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동문들은 그때 받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된다. 미주 동창회 명부는 2015년 서인석, 문대옥 회기에서 마지막으로 발간되었으나 미주 회원들의 주거지가 요즈음 급속도로 변화하여 새 명부를 발행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형편이다. 따라서 서울에서 오는 이 명부가 최선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지난 호부터 시계탑 인쇄가 오래 걸리고 우편요금도 인상되어 유념해야 함을 서로 강조하고 원고 정리와 교정, 편집 논의를 마치고 사진촬영 후 회의를 마쳤다. 다음 모임은 4월 8일로 예정한다.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한 허선행 위원과는 따로 연락하여 결과를 알려드렸다. 글; 편집장 서윤석



정 유 석(64, 북가주)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적 쾌감을 느끼는 강도는 어느 쪽이 더 클까? 이런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제우스와 그의 아내 헤라는 이 같은 질문을 두고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다.

제우스는 올림프스에 사는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서열이 높은 주신(主神)이었다. 그 위치에 걸맞게 바람을 피우는 면에 있어서도 제우스를 따를만한 신은 없었다. 그는 치마만 돌렸다면 그 대상이 신이건 인간이건 가리지 않았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들을 유혹했으며 대체로 성공하여 그녀들과 정사를 벌였다.

그는 주신인 만큼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다. 스파르타 왕국의 왕비인 리다를 유혹하려고 작심을 하자 그는 자신을 백조로 변하게 했다. 옷 한 자락 몸에 걸치지 않은 나신으로 강가에 누워 방심한 채 즐기고 있는 리다에게 접근한 백조는 그녀의 다리 사이에 슬쩍 자기의 몸을 기대었다. 여자를 성적으로 흥분시킨 것이다. 그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그녀

를 범할 수 있었다.

제우스는 헤라를 아내로 삼을 때에도 이와 비슷한 책략을 썼다. 원래 헤라는 제우스의 친동생이었다. 오빠인 그가 자기에게 음욕을 품고 청혼까지 하자 그녀는 질겁하고 성을 내었다.

그러나 하루는 헤라가 산책길에 나섰을 때 날개가 부러진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동정심이 누구보다도 많은 헤라는 불쌍한 새를 주워 자기의 가슴에 품었다.

그때 갑자기 새가 제우스로 변하더니 그녀를 범하고 말았다. 이 돌연한 변화에 그녀는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다가 얼떨결에 친오빠의 청혼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타나는 존재이지만 그는 신약성서에도 잠시 언급되어 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전도여행을 하던 중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란 곳에 이른다. 그곳에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앓은뱅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뛰며 걷게 했다.

그 지방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그들 가운데 내려오셨다고 소리 질렀다. 바나바는 쓰스이고 바울은 말하는 자이기 때문에 허메가 분명하다고 했다.

그 장면을 전해 들은 성 밖 쓰스 신전의 제사장인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들과 제사를 지내려 하니 두 사도는 옷을 찢고 그들 사이에 들어가 소리 질러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 신들에

대한 제사를 말했다.

여기에 나오는 '쓰스'가 바로 '제우스' 신을 말하며 '허메'는 원래 제우스의 전령사였다. 사람들이 '바나바' 사도를 모든 신들 중의 주신인 '제우스'로 생각한 바로 보아 그는 '바울'에 비해 허우대가 크고 풍채가 좋았던 모양이다.

한편 루스드라가 아직도 그리스와 앙숙인 터키 중부에 위치한 도시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도 시대에도 이미 그리스인들의 해외 이주가 빈번했던 것 같고 따라서 그리스의 문화가 지중해 일대에 광범위하게 퍼져 여러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스 신들 사이의 결혼 후에도 제우스는 계속해서 바람을 피우고 돌아다녔지만 헤라는 섹스에 대해 별로 흥미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제우스가 자주 외도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심하게 질투하고 성을 냈다.

그렇게 앙양불락하던 사이인데도 그들은 남녀 중 어느 쪽이 더 성에서 쾌감을 갖는지에 대해 말다툼을 시작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마침내 그들은 타이러씨어스란 인간에게 해답을 구하기로 합의했다.

테베 사람 타이러씨어스는 어느 날 숲속을 걷다가 뱀 두 마리가 서로 엉켜 교미를 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가 막대기로 때렸더니 암놈이 죽었다. 신들은 때마침 뱀들의 교미를 흥미롭게 지켜보는 관음증이라도 빠져 있었나 보다. 그들은 판을 깨는 무례한 침입자에게 노여워해서 그를 여자로 만들었다.

7년 후에 같은 장소를 지나다가 그는

뱀이 교미하는 것을 보고는 별생각도 없이 또다시 막대기로 그들을 때렸더니 이번에는 수놈이 죽었다. 이번에도 화가 난 신들은 그를 남자라 바꾸어버렸다.

그런 연고로 해서 타이러씨어스는 남자도 되어 보고 여자도 되면서 많은 성경험을 했다. 따라서 그는 제우스와 헤라의 논쟁에 대해 해답을 할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있었다.

제우스는 성행위에서 정말로 재미를 보는 것은 여자라고 했고 헤라는 천만에 그것은 남자라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던 중이었다. 타이러씨어스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만일 몸을 섞어 사랑을 만드는 즐거움을 열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세 개를 세 번 곱한 것이 여자에게 가고 남자에게는 한 개만 남을 뿐이지요.”

결국 제대로만 한다면 여자는 남자보다 성교에서 9배나 더 큰 즐거움을 갖는다는 대답이었다.

화가 꼭두까지 난 헤라는 그 자리에서 타이러씨어스를 장님으로 만들어 버렸다. 제우스는 아무리 주신이라 해도 다른 신이 내린 조치를 취소시킬 권한은 없었다. 그래서 자기편을 든 타이러씨어스에게 미안한 마음에서 장님이 된 타이러씨어스에게 남의 흥복을 점치는 능력을 부여했다.

부인 헤라가 성교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했다면 제우스는 주신으로 여성을 유인하여 성공하는 데는 특출한 기술을 지녔겠지만 부인을 성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는 존재였던 것 같다.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국가',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그들의 현재 국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은 '祖國'일 것이다. 친정집에 비유될 조국은 해외 동포들에게 마음속으로 늘 큰 버팀목이요 위안됨을 안다.

오늘 최불암 선생의 “한국인의 밥상” 프로그램은 영구 귀국한 옛 사할린 교포들의 집성촌이 있는 안산, 인천, 광주지역 탐방과 그들의 한국식과 소련식 음식 문화에 대한 것이었으며 교육용으로 참유익했다고 생각한다. 일제 식민지 시절 강제 징용으로 사할린 탄광에 끌려가 매일 10시간 이상의 강제 노역을 하는 가장(부친)을 바라보는 가족들. 어린 자녀들, 모친의 심정은 어땠을까? 도시락통에 밥과 김치, 멸치볶음이 전부였고 일이 고되고 허기져 점심 전 일찍이 도시락을 다 비우곤 오후엔 빈속에 그 고된 일을 마쳐야 했을 뿐더러 몸이 불편해도 용납이 안되고 노역을 못하면 짐승처럼 매질을 당해야 했던 가장(생존해 계신 분들은 90대 중반 이후이고 대부분 이미 고인들이 되심)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남겨진 자녀들이 1990년대 한 러 협상으로 조국으로 영구 귀국하게 되어 몇몇 도시에 분산 집성촌을 구성하게 된 연유이다. 그렇게도 무국적자로 갖은 냉대와 멸시를 받다가 그동안 비약적 발전을 한 조국이라는 곳에 오니 오직 놀라움과 감탄뿐! 주민등록증(국적증명서) 받고 기뻐하는 모습, 무국적자의 설움을 단번에 씻어주는 종이 한 장을 움켜쥐고 세상을 얻은 듯한 모습, 그분들이 아니고는 이해가 잘 가지 않으리라.

천국이 따로 없다. 이곳 조국이 바로 그분들겐 천국! 아파트 단지 내 공동 텃밭에서 일군 각종 야채로 김장김치를 담가 먹고 소련식 샐러드며, 오징어순대며 만두 등 고국과 소련의 혼합 음식을 재생산, 편안한 고국 생활함을 목격하니 참으로 보기 좋으며 마음 흐뭇해진다.

이러한 것이 국가며 조국이 아니겠는가!

국가가, 조국이 튼튼하며 발전할 때 국민들은 안심하며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국가를 보위(保衛) 하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것을 엄숙히 선서



문 성 길(70, 남가주)

한다”라는 대통령 취임식 선서가 진정으로 잘 실행되는 국가, 조국을 보고 싶다.

시간과 공간

달력을 넘기다 보니 올해 마지막 12월이 소위 말하는 “어느새-” 성큼 내 곁에 다가와 있다.

살다 보면 무슨 일들의 끊임없는 연속들의 일상사가 돼버렸기에 12월이 덩석 다가왔다고 놀란 일은 아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정신 차려 지나간 일들을 회고, 점검해 보며, 앞으로의 할 일들을 예상, 준비해 보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봄도 괜찮을 것 같다.

우리들은 종종, 인생무상함을 느끼며, 어느 땐 시간이 왜 이리도 느리게, 또 어느 땐 화살 나는 것 같기도 할까? 시간은 단지 같은 시간일 텐데..., 이러한 시간 그리고 공간에 대한 생각과, 관찰을 옛 철학자(데카르트, 칸트 등), 과학 특히 이론 물리학, 수학자(라이프치히, 뉴턴, 아인슈타인, 호킹)들은 각자의 소신으로 발표했는데 그중 여기서 소개할 분은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이다.

대표작인 “순수이성 비판서 1, 2권(대우고전 총서 019(백종현 교수 옮김))을 2006년 고국방문시 세종로 교보문고 서점에서 산 후 옛 스승님 조흥식 교장 선생님의 격려 말씀, “참 난해한 책인데, 이 책에로의 도전정신 참 보기 좋네, 한번 해보게!” 잊히질 않는다. 7轉 8起라 할까, 우여곡절 끝에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어렵פות이나마 이해를 했는지 여쭙지는 몰라도 틈틈이 컴퓨터에 정리, 입력을 하며 완독을 했음을 자신 없지만 말씀드린다.(2011년 6월 29일 정리 완성).

시간과 공간이란 한마디로 감히 정리한다면,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 없이 선형적(先驗的) 주관적, 상상력에 의해 즉 다시 말해 대상 인식에

서 감각을 통해 의식에 주어지는 잡다한 현상의 재료들을 끝이 없는 무한대의 선상이나 공간에 한 조각, 한 조각 서로 결합하여 병렬적(並列的), 혹은 서로 잇따라 계기적(繼起的)의 방식으로 정리해놓은 하나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 ‘저기’, ‘거기’라던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공간과 시간적인 것 같은 의미는 끝이 보이지 않는 무한대 안에서의 공간과 선상의 한 조각 혹은 한 점에 불과하다.

칸트 이전엔 ‘인식’이란 우리가 일상 쓰는 말 그대로 즉, 그냥 눈에 보이는 외부 물건을 인식, 칸트 이후에는 인식은 인간의 주관적 영역으로 옮겨와 인식 대상은 인간의 주관에 던져진 것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인간은 그것을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예술에선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의 붉은 조화(Harmony in Red 1908)가 대상을 자기 머리에서 자신만의 상상력으로 구성한 것이 대표적이라 하겠다.

아인슈타인은 시간, 공간을 하나로 규정, 학문적 상상력을 통해 외부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직관으로 의식 속에 있을 뿐이라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라는 성경 말씀도 공간개념의 초월적 우리의 상상세계, 즉 낙타를 한없이 작게 만들어놓고 바늘구멍은 한없이 크게 만들어 놓는 상상세계에선 능히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이 성경 구절의 본래 의미는 부자들에게 선행 강조의 경귀이나...

다시 부연하면 시간과 공간이란 선형적 상상력의 산물이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니, 병역의무 기간 3년(?)을 거의 마치고 除隊 한 달을 둔 젊은 병사의 마지막 달력의 하루하루를 제거가는 날들은 일각(一刻)이 여삼추(如三秋)(직역하면 15분이 3년처럼 느껴진

다)일 것이고, 얼마 전 끝난 월드컵 한국의 16강 진출 결정 확정되기 위한 H조에서 포르투갈에게 승리 후 우루과이가 가나에게서의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데, 또 다른 경기장의 경기 결과가 몇 분인가 늦게 나오는 그 짧은 기간이 그토록 길어지게(단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는 한 축구 선수의 말과도 같이,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을 때의 모든 이들의 공통적 생각이며, 기차를 타고 달릴 때 자신은 그대로 서 있는데 마치 山川境界가 움직이며 빨리 지나가는 듯한 경우가, 12월 말에 빛이나, 삭월세, 세금을 내야 하는 빚쟁이, 셋방살이하는 사람, 사업이 안되어 자금 숨통이 막힌 사업가들에게 왜 그리도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도 없이 매정하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렇기에 원수처럼 지벌해야만 할 날들이 자주 닥쳐오는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했을 줄로 생각된다.

一場春夢이니 하며 우리들이 살아가며 인생의 덧없음을 한탄할 필요가 더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며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최선을 다해, 자신은 물론 타인, 특히 약자들을 생각하며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해 봄이 나를 포함한 모두에게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適性적성, 적성 혹은 適合度라 할까?

극단적 예로 죽음에 가장 적합도가 좋은 사람은? 제일 낮은 사람은? 첫 번째 경우는 司祭, 두 번째 경우는 死刑囚가 아닐까 한다.

누가 죽음을 선택 받아들일까 하겠나 마는 사제 길에 입문할 때부터 이분들은 죽음을 초개같이 여기며 신과 인간의 교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맹세한 것으로 안다. 하기에 때론 이분들께 서운했던 경험들이 분명 있었던 때를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 것이다. 예로, 부모님이나, 친지 어느 분의 사망 소식을 전할 때 이분들은 차분히, 덤덤히 반응하신다. 왜 죽음이란 인생의 과정 중 한 단면일 뿐이기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른 한편 사형수 경우는 어떠할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다음면에 계속>



그대는 아는가 그 남쪽 나라를

이 건 일 (68, 남가주)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좋아하는 노래 한두 곡은 품고 산다.

나에게는 Ambroise Thomas 작곡의 오페라 미농(Mignon) 중에서 아리아 “Connais-tu le pays?” (그대는 아는가 그 남쪽 나라를?)가 그런 노래 중의 하나이다.

내가 중학교 일학년 때 지금은 나의 동서가 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에 있던 지금 수준으로는 별 볼일 없는 음향 재생 장치인 휴대용 전축으로 일본에서 나온 LP 판에 수록된 flute 독주로 처음 듣고 흠뻑 빠져들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이 오페라 아리아를 프랑스어 혹은 독일어로도 자주 들었었다. 원작인 Goethe의 시로도 즐겨 읽고 또 들던 곡이다.

쌉쌀한 초콜릿 맛 같은 약간 어두운 mezzo soprano의 목소리로 이 멜랑콜릭한 곡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잦아들면서 가라앉는 느낌을 갖게 된다.

Barabra Hendricks가 부르는 것이 제일 좋다. 독일어 가사와 프랑스어 가사가 조금 다르다. 한글 번역은 독일어판에 기초하고 있다.

Aria Libretto

Connais-tu le pays o fleurit l'oranger?
Le pays des fruits d'or et des roses vermeilles,
Ou la brise est plus douce et l'oiseau plus leger,
Ou dans toute saison butinent les abeilles,
Ou rayonne et sourit, comme un bienfait de Dieu,
Un ternel printemps sous un ciel toujours bleu!
Helas! Que ne puis-je te suivre
Vers ce rivage heureux d'o le sort m'exila!
C'est la c'est la que je voudrais vivre,
Aimer, aimer et mourir!

(하락 ...)

미농은 잘 아시다시피 괴테 Goethe 원작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 (Wilhelm Meisters Lehrjahre)에 나오는 이야기로 귀족 가문의 딸이었던 미농이 집시들에게 납치되어 가진 고초를 당하면서 거리에서 춤과 노래를 해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어느 날 미농이 단장의 명을 어겨 채찍으로 맞으려 할 때 지나가던 젊은 수행자인 빌헬름 마이스터(Wilhelm Meister)가 구해주며 고향이 어디냐고 묻자 그녀가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이며 시이다.

미농은 자기를 구해준 마이스터를 사랑하게 되고...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과란 곡절 끝에 나를 기쁘게 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된다.

이 시는 고향에 대한 향수가 깊게 스며 있는 서정적인 시인데 모두 3연으로 되

어 있다. 평소에는 딱딱하게 들리는 독일 어이지만 이 시만큼은 아주 아름답게 들린다.

Kennst du das Land

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uhn,
Im dunklen Laub die Goldorangen gluhn,
Ein sanfter Wind vom blauen Himmel weht,
Die Myrte still und hoch der Lorbeer steht
Kennst du es wohl?

Dahin, dahin
Mocht ich mit dir, o mein Geliebter, ziehn!
(중략...)

“그대는 아는가, 레몬 꽃 피는 나라를,
검푸른 잎 새에 황금빛 오렌지 불타고,
살랑이는 바람은 푸른 하늘에서 불어오고, 뭉크데(배롱나무)는
고요하며 월계수는 높이 서있고,
그대는 혹 그 나라를 아는가?
그곳으로! 그곳으로,
그대와 함께 가리,
사랑하는 사람이여.”

제목이 원래대로라면 “그대는 아는가, 레몬 꽃 피는 나라를(Kennst du das Land, wo die Zitronen bluhn)”가 되겠지만 우리에게 ‘그대는 아는가, 그 남쪽 나라를’로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그 남쪽 나라는 레몬 꽃과 배롱나무가 있는 이태리를 의미하니 독일에 비해 남쪽 나라인 것은 맞는 말이다.

배롱나무(myrtle=myrte)는 중서부에 살 때는 본 적이 없다가 이곳 남가주에 와서 살게 되니 가로수나 정원수로 심어져 있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배롱나무에는 흰꽃과 붉은 꽃이 피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옛날 선비들이 좋아하여 집 주위에 많이 심었으며 목백일홍이라는 이름도 있다.



몇 년 전 담양(潭陽)에 갔다가 명옥헌 원림(鳴玉軒 苑林)에 들렀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배롱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 우리 집 앞에도 두 그루의 흰 배롱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다.

배롱나무는 한반도의 남쪽 지방에서만

자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인지 서울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다.

십수 년전 어느 주말, 뉴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그 주말에 뉴욕시에서 있었던 학회도 참석하고 또 거기 사는 큰 아이와 보스턴에서 작은 아이도 내려와서 오랜만에 여섯 식구가 모여서 잘 지내고, 우리 마나님이 Morgan Library & Museum에서 있는 특별전 ‘Painted with words Vincent van Gogh’s Letters to Emile Bernard’을 보러 가자고 해서 가서 보았다.

문제는 내가 전시회보다도 Morgan의 서재에 소장된 그 많은 책들을 보고 정말로 쇼크를 받았다. 그 수많은 책들이 전부 초판본 아니면 희귀본들로 괴테의 ‘Wilhelm Meisters Lehrjahre’도 초판본이 있었고, 또 내가 이 노래를 기억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었다. 또 나폴레옹이 소장했었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도 있었다. 그의 Gutenberg의 성경 초판본, Charles Dickens가 직접 손으로 쓴 ‘크

리스마스 캐롤’ 원고와 초판본 등등 이루다 말할 수가 없다. 돈의 위력에 완전히 기가 죽어 나왔었다.

한국이나 미국 이민 와서 중서부 지방에서 살 때에는 그 춥고 우중충하고 긴 겨울이 싫어서 항상 레몬 꽃과 미르테 나무가 꽃 피는 그 남쪽 나라(!)를 동경했었다. 그러나 이곳 남가주로 이주 해보니 이곳이 바로 그곳이 아닌가?

때가 되면 사방에 향긋한 레몬 꽃이 피고, 배롱나무꽃도 피고, 내가 좋아하는 jacaranda도 지천으로 핀다.

친구 송 군 말따따나 “처음엔 아주 좋지. 그래 어디 한 일 년 살아 봐. 꽃이 피어 있으면 피어 있나 보다 하고 별로 느끼지 못하게 되지.”

그의 말대로 이제는 그 남쪽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고 있다.

이곳이 에덴동산인줄은 1월에 골프 치다 문득 쳐다보는 흰 눈 쌓인 Mt. Baldy를 보면 잠깐 상기하게 되나 이내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만다.

너무 북에 겨워하는 소리이겠지.

측백나무

- 思母曲



김병오(69, 버지니아)

어두워진 측백나무 위로 오래 전 둥근 달이 떴다

내 떠나 불쑥 보고싶으면 장독대 디딤돌 올라
저 달을 보세요 검푸른 波濤 넘어 저도 달을 볼터이니

달은 하나, 얼룩진 얼굴
銀河水 사잇길 흘러 정안수 맑은 물 속 어머니와 만나겠지요

옛날 약속이 생각나는 저녁

밤비행기 구름 속을 나오고 있다

언젠가 궁금해
달애기를 했더니 서러워 달을 피하셨다고 하신다

江山이 울던 밤
시대의 등불이 깜빡이던 밤

겨울 깊어 떠나는 기러기 南岸으로 날아가고
측백나무 그림자 두 손 모으고 달빛 아래 서 있다

저 멀리 달로 가면 離別 없이 살려나

오늘도
불쑥 보고 싶으면 나는 달을 보고

어머니는 달이 되어 가셨다.

는 인도 출신 세계적 대 지휘자 주빈 메타(Zubin Mehta)는 1936년 영국령 인도 제국 뭄바이에서 봄베이 교향악단 창설자이며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라 음악적 영감을 이어받았으나 어머니의 압력으로 St. Xavier 의대에 진학했으나 중도 포기, 비엔나 음악학교에서 한스 스바로프스키로부터 지휘학을 사사, 거장 클라우디오 아바도와 1, 2등을 다룬 같은 문학생, 얼마나 멋진가!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의사 생활보다 현명한 판단으로 이룩한 멋진 삶이 아닌가!

영국 작가 써머셋 모음(William Somerset Maugham)은 파리 출생, 영국에서 의대 졸업, 의사가 되었지만 작가로서 267편의 소설, 3600편의 시와 단편소설, 그중 달과 6펜스로 유명하다, 처칠과 아인슈타인도 예외는 아니다.

이런 예는 수없이 많다.
이과 계열 학생들이 대학 이름만 보고 적성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문과에 지원

합격하여 문과 계열의 80%를 점유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입시 전문가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 국가 장래가 암울하다. 꽤 오래전엔 공학박사 취득자가 돌연 사법시험 준비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자세한 연유는 모르겠으나 두 가지 이유가 아닐까 한다. 현재 위치에 불만족, 아니면 좀 더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 선택을 뒤늦게 한 것일까? 그도 저도 아니면 사회 관습, 권력, 명예, 부 추구의 극단적 모범생(?)의 평을 듣고져 함인가? 하여튼 듣기 불편한 이야기였다.

결론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잘못된 사고방식의 개선이 절대로 필요한 연유가 여기에 있다.

입시, 진학철에 입시생은 물론 그들 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드리고져 합니다.

용기를 부여해주세요,
자녀들에게!!

〈전면에서 계속〉 자신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아니 정반대로 생을 강제로 마감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은 사형 피집행 당사자로 죽음의 적합도가 가장 낮을 것이라고 확신할 것이다. 비유가 극단적이고 또한 본래 이글의 목적의 적합도에 적절하지 못했다고 독자들께서 생각한다면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근래 한국에선 고교 졸업생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고 성적 발표에 학생 본인은 물론 부모님들 희비가 상당한 것 같다. 학생들의 장래에 크나큰 영향을 주기 때문일 것이기에. 교육은 백년대계로 국가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왔던 게 사실이다. 한편 그만큼 어려운 국가 대사일 것이다. 교육문제, 특히 입시에 관한 정책은 정권에 관계없이 연속성과 전문성이 절대로 필요한 이유이다.

경기할 때 룰이 필요하다. 교육과정 중 자신의 진로 결정 시 본인, 부모, 선생님, 심리, 적성 전문가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가장 적절한 결과를 도출해도 훗날 후회할 경우가 분명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온통 학생의 몫이 돼버릴 것이기에 심각한 문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손실이 될 것이다. 적성 결과로 이과, 문과 계통으로 큰 윤곽을 잡은 후, 두 그룹에 적절한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얼마간의 유예, 시험기간을 주어 그 학생에 적절한 과정인지를 판단해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성, 적성을 잘 파악, 발굴, 살려 후회 없는 단 한 번의 생을 살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예술 재능이 있는 학생에게 여타 과목은 흥미도 없을뿐더러 따라가기도 힘들어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부모님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듯이 정작 모르고 자식을 다그치기만 하고 있을 때 주위 친지분의 충고로 미술 방향으로 변경하여 만화가로 성공했다는 이야기며, 현존하



은퇴

노영일(68, 시카고)

은퇴를 앞두고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내가 평생을 몸 바쳐 온 의업을 훌쩍 떠날 수 있을까. 일을 그만두면 무엇으로 시간을 보낼까. 여생을 지지할 경제적인 여유는 있는가. 그저 죽을 날까지 목숨만 연장하는 것인가.

나는 평생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한다. 성격 탓이기도 하겠지만, 잠자는 시간과 최소한의 개인적인 시간을 빼고는 하루 24시간 불침번을 서고 일년 365일을 그렇게 일했다.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 같이 뛰던 동료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어느덧 내가 병원 의사들 중에서 최고령자가 되었다. 어떤 때는 젊은 의사들 가운데서 눈치가 보이기도 하였다. 선배 의사가 존경을 받는 시대는 지났고 명령이 오히려 약점이 되기 십상이었다. 특히 Analog 시대에 살아온 우리 세대는 Digital 시대에 자라난 젊은 세대보다 뒤지는 경우가 많았다. 선배로서 후배를 가르쳐야 할 텐데 오히려 후배들에게서 배워야 할 형편이었다. 발 빠른 전산화는 우리 세대를 비능률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같은 일을 해도 전보다 힘들었고 시간도 더 많이 들었다. 최근 몇 년간은 업무량을 줄였지만 일단 일을 하다 보면 부담감은 마찬가지였다. 체력의 한계도 느꼈다. 직장 동료들은 언제 은퇴할 거냐고 자주 물어 왔다. 어떤 친구들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다가 정 못하겠으면 그만 두라 했다.

적절한 은퇴 시기를 가늠하던 도중 코로나 사태가 벌어져 또 3년을 어영부영 지냈다. 그러다가 6개월 전 은퇴를 단행했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자니 허탈감마저 들었다. 몸과 마음이 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북했다. 일할 시간에 집에 있자니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안절부절 불안감까지 들었다. 이것이 workaholic 증세인가? 무슨 계획을 세웠다가도 발동이 안 걸려 포기해 버린다. 무위도식의 혼돈 상태가 얼마간 지속됐다. 여기저기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하였으나 별 차도가 없었다. 먼저 은퇴한 친구들 중에는 은퇴하니까 아주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떤 친구는 한 일 년 지나야 새 생활에 적응이 된다고 하기도 했다. 아내는 하루 세 끼 밥해 먹여야 하는 삼식이 집에 있으니 자유 시간이 없다고 도리어 불평하는 눈치이다. 아내 따라 샵도 가고 식료품점에 가기도 한다. 아내 심부름도 종종 한다. 위염이 있던 가장이 하루아침에 하잘것 없는 신세로 전락한 기분이다. 꽃감 빼먹듯 돈 쓰는데도 신경이 쓰인다.

내 심리 상태를 눈치챘는지 큰딸이 책을 한 권 보내주고 읽어 보라고 하였다. Arthur Brooks가 쓴 From Strength to Strength라는 책이었다.

종의 기원을 쓴 세기의 과학자 Charles Darwin도 만년에는 자기 연구에 더 진전이 없자 자기의 업적에 불만을 느끼고 자기 인생 자체가 실패작이라고 생각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노년에 지능의 감퇴를 경험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 밖에도 많은 천재들이 말년에 자기 능력의 감퇴를 느끼고 실망과 불행 속에 살았다.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곡선을 따라간다. 지능이나 능력이 발달하고, 정점에 이르고, 그리고는 필연적으로 하향 곡선을 따라간다. 일반적으로 30대가 지나면 벌써 하향 곡선에 들어선다. 운동선수나 예술가 등은 좀 더 일찍 정점에 도달하고,

과학자들이나 교육자 등은 조금 늦게 정점에 이른다. 한 통계에 의하면 의사는 40대에 정점에 이르고, 65세가 넘으면 의료과실을 저지를 확률이 50% 증가한다.

그러면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늘어 가며 점점 추하게 시들어져가는 모습으로 여생을 좌절과 불행 속에 살아야 하나? 아니면 빨리 살고, 훌륭한 업적을 이루고, 젊어서 죽고, 아름다운 모습을 남기는 소위 James Dean 공식을 따라가는 것이 이상적일까?

저자는 누구나 경험하는 첫 번째 곡선이 내리막길을 갈 때 두 번째 곡선을 만들어 도약하여야 한다고 한다. 첫 번째 곡선(First curve)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유동성 지능(fluid intelligence)을 이용한다면 두 번째 곡선(Second curve)은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세련되고 정제된 결정성(結晶性)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을 이용하는 것이다.

Johann Sebastian Bach(J.S.)는 바로크 음악의 개척자다. 그는 한때 최고의 연주자였으며 작곡가였다. 그러나 그의 명성과 영예는 오래가지 못했다.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젊은 사람들한테 밀려났다. J.S.는 연주와 작곡을 그만두고 Art of Fugue라는 일종의 음악 교과서를 만들었다. 이는 불후의 명작으로 그는 후세에 큰 이름을 남겼다. 그의 아들 Carl Philipp Emanuel Bach (C.P.E.)는 아버지를 뒤이어 Bach 음악을 완성시켰다. C.P.E.는 최고의 연주자이자 작곡가가 되어 아버지 J.S.의 명예를 능가했다. 그러나 그도 아버지 J.S.의 Art of Fugue를 성서처럼 신봉했다.

이 책의 저자 Arthur Brooks 자신도 젊었을 때에 훌륭한 French horn 연주자였으나 나이가 들에 따라 자기의 연주 능력이 떨어짐을 실감하고 Social Science를 공부하여 대학교수가 되고 많은 저작물을 내어 성공적인 여생을 보내고 있다.

또 저자는 행복한 여생을 보내려 하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첫째, 성공에 집착하지 말라. 한 가지 성공을 하면 다음 성공에 매달리게 되고 계속 더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과 실망에 빠진다. 이는 마치 중독 현상과 비슷하다.

둘째, 자존심, 두려움, 사회적인 비교와 고립을 극복해야 한다. 남들과 비교하여 남보다 더 잘되기를 바라고 우월해지기를 바라면 결코 행복감을 느낄 수 없다.

셋째,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어떤 종교에서는 무소유가 마음의 행복을 준다고 한다. 만족감 = 내가 가진 것 ÷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많으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족감은 떨어진다. 원하는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무엇을 내가 원하는가 보다 왜 내가 그것을 원하는가를 따져 보고 목록을 줄여 나가야 한다.

넷째, 죽음에 대하여 숙고하라. 자기 직업을 숙명이라 생각하고 죽는날 까지 최선을 다하여 후세에 이름을 남기겠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능력이 감퇴할 때 좌절감을 느끼고 일찍 죽음을 경험하기 쉽다.

넷째, 행복해지기 위하여는 친한 친구가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로 사귀는 친구보다는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한다.

다섯째, 종교적 신앙심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리스인들의 개념으로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philia (친구 간의 사랑), eros (이성 간의 사랑),

The Temple of God: Physician's Perspective



Lee, Hahn Joong (65, CA)

The temple of God, built with?
This body, mind and spirit,
Where I have resided some eight decades
With or without realization that
HIS spirit may dwell in there ever since
He created it into this world.

Alas, the temple is very old now and
needs lots of tender care with
all the attention to detail and true love.
Any neglect may lead to the collapse of
the worn out structure and a total destruction.
Tender loving care for this creation of HIS
may help HIS spirit continue to dwell in there
creating abundance of miracles out of HIS grace.
God is holy.

The temple where HIS spirit dwells is holy.
You may be holy whether you realize it or not.
You can only hope you will have HIS company to the end
By taking as good a care as possible of HIS temple
By taking as good a care as possible of your body, mind and spirit,
Namely, a job of a physician, the highest calling, indeed.

A physician who has the privilege to enter these temples
indeed needs to be reminded in regard to how special
the privilege is no matter how great he may be
because in the eyes of Creator, the physician is only another creature
perhaps with a few secrets out of millions of HIS.

Alas, the Pandemic still surges after three years,
Continuing to waste millions of lives,
With viruses mutating in all directions
Puzzling the best scientific minds ever so often,
Bringing to daylight all the man-created stupidities.
And yet there are enough good men and women in this world
Who can endure for the sake of mankind and save our species,
God's pride, the temple of God, HIS prized creation,
the most beautiful creature of the universe.

Each human being may be holy.
Each human being may be a temple of God.
Each human being must learn to take care of his temple of God.

storge (부모와 자녀들 간의 사랑), philautia (자기 사랑), xenia (친절, 모르는 사람에 대한 사랑) 등등. 그러나 이들을 초월한 사랑은 agape(신성한 사랑)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바다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밀물 때 보다가 썰물 때 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을 안다. 젊었을 때의 첫 번째 곡선이 하향선을 그릴 때 두 번째의 곡선으로 뛰어넘어 '힘'에서 '힘'으로 도약하면 성공적이고 행복한 여생을 살수 있다고 작가는 결론을 맺는다.

죽는 날까지 환자 치료를 하다가 쓰러지는 의사가 인술의 모범으로 존경받던 시대는 지났다. 그것은 의사 자신의 욕심이지 환자들에게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팔십중수(八十種樹)라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이 80세에 마당에 과일나무를 심었다. 이웃들은 그가 과일이 열리기도 전에 죽을 텐데 나무를 심는다고 모두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오래 살아 맛있는 과일을 따먹으며 즐거운 여생을 보냈다 한다.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란 단편이 생각난다. 사람들이 다 떠난 외딴고 황폐한 산골에 홀로 살던 양치기 목자인 엘제아르 부피에는 아무도 모르게 묵묵히 매일 나무를 심었다. 몇십 년이 지난 후 이 황폐했던 산간마을이 나무가 무성한 낙원이 되었다.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었다. 그들은 누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나무가 저절로 자란 것으로 생각했다. 부피에는 양로원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나는 어떤 두 번째 곡선으로 도약을 하여야 하나?

손자와 함께한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 II



오 용 호(72, 대뉴욕)

고 놀랐는지 마구 내달리는데 정말 장관이 아닐 수 없다. 해가 많이 떠오르니 추위는 가시고 몸이 따스해진다. 위에서 날아다니면서 동물들을 관찰하는 것은 정말로 색다른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이륙으로부터 약 90여 분 하늘을 날으며 초원의 싱그러움 공기를 쏘이며 유영한 후에 착륙했는데 바구니가 뉘인채 한참을 풍선에 이끌려 bumpy ground에 시달리며 마침내 정지하였다.

각 풍선의 도착 지점은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대기하고 있던 지프가 달려와 여행객들을 태우고 한 장소로 모이니 여러 개의 기다란 간이 식탁이 놓여있고 간단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었다. 100여 명의 여행객들이 식탁에 앉기 전에 각자 샴페인 잔을 들고 풍선 탑승을 축하하는데 한 파일럿이 그 재미난 샴페인 축하 유래의 설명을 듣고 다 같이 cheers를 외치고 나서 즐거운 아침 식사를 마치고 balloon ride certificates를 받고 아침 일정을 마쳤다. 우리는 고대하던 코뿔소와 치타를 찾아 나서 점심때까지 세령게티 초원을 누비고 다녔지만 이제까지 너무나 많이 보아온 기린, 코끼리, 얼룩말, 하마, 타조, 멧돼지, 그리고 무수한 무리의 여러 종류의 초식 동물들과 수많은 날아다니고 걸어 다니는 새들만 만났다. 한 가지 수확이라면 저 멀리 풀밭에서 서성이는 승냥이 두 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나서 호텔로 돌아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오후 사파리는 생략하고 내일 하루를 기약하였다. 시원한 호텔 로비에서 시원한 맥주를 마시며 멀리 초원을 조망하니 스트르 졸음이 몰려온다. 대니엘은 피곤도 모르고 시원한 로비 앞 수영장으로 풍덩 뛰어들다.



오용호 동문 부부

다음날은 서두르지 않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여유 있게 사파리에 나섰는데 한참을 가도 우리가 애타게 찾던 코뿔소와 치타는 나타날 기미가 안 보인다. 한 시간여를 달리며 많은 동물들이 배회하며 우리를 스치고 지나갔는데 차가 갑자기 멈추며 가이드가 멀리 떨어진 mound 위에 치타 한 마리가 고개를 들고 어딘가를 응시하며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곧 그는 위키 토키로 다른 차에 연락을 취하니 곧 흠뻑 젖은 나머지 4대의 지프들이 모여들었다. 거의 9일 만에 우리가 그렇게 애타게 찾던 치타를 멀리서나마 만나게 되니 다들 흥분이 되어 한참 동안을 떠들며 사진도 찍고 망원 렌즈 카메라로 찍은 확대된 사진을 돌려보며 좋아했다. 죽히 20여 분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치타의 다음 행동을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그놈은 요동도 않고 앉아서 어디인가를 주시만 하였다. 일행은 이제는 지쳐서 아직도 보지 못한 코뿔소를 찾아서 그곳을 떠났다. 얼마쯤 가는데 다른 차에서 신호가 왔다. 나무 위에 커다란 python 한 마리를 발견한 것이다. 다섯 대의 지프들이 좁은 시야를 나누어서 나뭇가지와 앞으로 반 이상 가리어진

python을 아쉽게 바라보는데 이놈이 우릴 강그리 무시하고 도통 미동도 하지 않고 나무에 착 달라붙어 있다. 한참 후 우리가 지쳐서 그곳을 떠나고 말았다. 그 후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발견 못하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호텔로 돌아왔다.

오후 사파리가 계획돼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텔에 머물면서 휴식을 위하여 사실상 사파리 여행은 이것으로 종결되고 내일은 공항으로 이동하는 절차만 남았다. 그날 저녁은 farewell party가 있어 호텔의 수영장 옆의 잘 가꾸어진 patio에 칵테일 파티를 시작으로 원형 테이블과 일자 테이블이 만들어져 원형 테이블에는 제일 어린 8세의 대니엘부터 금년 대학 입학에 기다리는 18세의 처녀까지 9명을 모처럼 한자리에 앉히고 다른 긴 일자 테이블에는 17명의 어른들이 (8명의 4-50대와 9명의 80전후의 노인네) 앉아 멋있는 만찬을 즐겼다. 해가 지면서 기온도 내려가고 시원했던 바람이 찬 바람으로 변하면서 사람들이 방으로 옷을 가지러 들락거리면서 디너 테이블이 어수선해졌고 조금 더 지나니 눈치가 파티를 종결했으면 하는 것 같았으나 어린애들 테이블은 여전히 즐겁고 활발하여 떠나고 싶지 않은 분위기였다. 나도 방에 들어가 옷을 더 가져올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더 앉아있었더니 이제는 더 참기가 어려워 자리를 뜰까 하는데 마침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애들을 데리고 자리를 떠서 파티는 파장되었다. 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우니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감기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되었다.

다음날 아침 호텔을 떠나면서도 흑시운이 따르면 공항 가는 도중이라도 코뿔소나 치타를 만날 수 있겠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한참을 그 넓은 세령게티 공원을 질주하는데 저 멀리 10여 대 이상의 지프들이 모여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가이드끼리는 서로 친하여 중요한 장면을 포착하면 연락을 해서 같이 사파리를 즐기므로 지프들이 몰려있으면 틀림없이 구경거리가 있다. 우리도 그곳에 당도하니 표범 한 마리가 방금 잡은 듯한 영양 한 마리를 나무에 걸쳐 놓고 자기는 조금 떨어진 나뭇가지에 누워서 아래 웅성이는 우리를 무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이 가리키는 다른 나뭇가지에는 새끼 한 마리가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 나무 아래 잡풀 더미에 우리 차에서는 3-4m 떨어진 곳에 암사자 한 마리가 조용히 머리를 문고 웅크리고 누워서 나무 위의 표범이나 그가 잡은 영양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 십여 분을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곳에 머물렀으나 모든 상황은 조그만치도 변화가 없고 우리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 했다.

비행장에 도착하니 조그마한 공항은

삶의 여유

나 두 섭 (73, 남가주)

시간이 있어도 쉴 줄 모른다면 어디서 행복을 느낄까.

친구가 있어도 소통할 수 없다면 어디서 즐거움을 얻는가.

재잘대는 어린이의 말소리가 안 들리면 어디서 순수한 마음을 엿볼까.

지저귀는 새소리를 바람에 흩날리면서 어디서 자연의 멜로디를 만날까.

가을밤 귀뚜라미 소리를 못 들으면 누가 계절의 변화를 알려줄까.

다람쥐의 눈과 꼬리를 볼 수 없다면 무슨 수로 자연과 소통할까.

뜨는 해 지는 석양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헬렌 켈러의 소원을 이해할까.

매 순간순간을 즐길 줄 모른다면 장수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고요한 밤에도 꿀잠을 잘 수 없다면 어디서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사진: 로스앤젤레스 풍경 (나두섭 촬영)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모든 업무는 사람 손과 몸으로 시골 버스 정류장같이 운영하였다. 이 12인승 쌍발기를 타고 우선 Arusha에 간 다음 그곳에서 지프를 타고 한 시간 이상 달려 킬리만자로 공항으로 이동한 후 도하 행 Qatar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가는 도중에 길이 딱 막혀서 영문을 몰으니 그 즈음이 탄자니아의 독립기념일이 되어 한 달여를 탄자니아 국기를 꽂고 여러 대의 관용차가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이 차들이 다니는 구간의 도로는 일단 모든 차는 세워 놓고 이 차들이 지나간 다음에야 운행정지를 풀어 주므로 도로가 막혀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길은 안 뚫리고 비행기 시간은 가까워 오고 하니 운전수가 차에서 내려 막 뛰어 가서 경찰에 호소하니 과연 관광국가답게 우리에게 특별 허락이 나와 우리는 뺑뺑이 도로를 달려와 오히려 예정 시간보다 빨리 공항에 도착하였다. 혼잡하고 비능률적인 출국 수속을 마치고 마침내 우리는 도하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올 때와 똑같이 5시간 비행 후 도하 공항에서 다시 서너 시간 lay over 후 마침내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마침 다행이었던 것은 떠나기 일주일 전에 미국의 해외 여행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귀국 시 코비드 테스트를 받을 필요가 없어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다행히 간 밤의 설친 잠과 작별 만찬의 추위에 몸 떨림에도 불구하고 감기는 걸리지 않았고 대니엘도 별 탈이 없었다. 비행기에 몸을 실으니 지난 10여 일의 여행이 꿈만 같고 긴장이 풀리어 온몸에 졸음이 몰려온다.



온 기 철(71, 남가주)

6. 선조 의주 파천

일본 한양 개성 평양 함락



blog.naver.com 신정비록

선조 한양을 떠나다.

이일이 상주에서 패주했다는 소식이 궁내에 전해지자 왕과 대신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아직은 조선 제일의 장수 신립이 일본군을 막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신립마저도 어처구니 없이 패전하자 궁내뿐만 아니라 한양 전체가 술렁였다. 백성들은 은과 집신을 사들였다. 도둑질이 성행했다. 조정 대신들은 사수파와 파천파로 나누어져서 갑론을박했다. 겁 많은 선조는 슬슬 도망갈 준비를 했다. 영의정 이산해는 파천을 강력히 주장했다.

선조는 난리 통에 죽거나 잡히거나 명나라로 망명할 경우를 염려했던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했다. 도원수로 김명원을 임명했다. 그리고 한양을 사수할 것이니 사재기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타 일렀다.

한양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에는 성첩이 약 3단계 설치되어 있었다. 성첩은 요즈음의 보초소이다. 원칙은 적어도 한 명이 각 성첩에 24시간 보초를 서야 했다. 그러나 겨우 7천 명이 보초를 섰다. 2만 3000개의 초소가 비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근무 중에 자거나 탄짓하기 일췌였다. 그중에 일부는 아전에게 뇌물을 주고 아예 근무지를 이탈하기도 했다. 한양을 방어할 방책은 전혀 없었다.

1592년 4월30일 선조는 신하, 궁녀, 노비 등 약 100명을 데리고 한양을 떠나 개성으로 향했다. 일본군이 침공한지 17일 만이었다. 일행이 돈의문(서대문) 밖으로 나서니 남대문 안쪽에 불길기 흰하게 보였다. 아직 일본군이 한양에 당도했을 리는 없는 노릇이었다. 왕과 대신들은 분명히 무지한 백성들의 소행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연기는 장혜원 쪽에서 나고 있었다. 노비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건물이었다. 조선 인구 40%가 노비였다.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들은 악명 높은 임해군과 병조판서의 집에 불을 질렀다. 외적이 쳐들어 오기 전에 조선의 위정자들은 평소에 억압했던 백성들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벽제를 지나니 비가 온다. 임금의 피난 행렬을 더욱 처량하게 만들었다.

널문리가 판문점



blog.naver.com 재미있는 지명
선조 일행이 임진강변에 도착하니 날

이 어두워져서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게 되었다. 마침 강가에 나룻배를 관리하는 화석정이 지어져 있었다. 일행은 이 건물에 불을 질러서 밤을 밝혔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넜다. 조금 가서 동아리라는 마을에 도착하니 임진강 지류인 사천강이 길을 막았다. 마침 주민들이 문짝을 들고 와서 배 다리를 만들어서 강을 건널 수 있었다. 그 후로는 이곳을 널문리라고 불렀다. 360여 년 후에 중공군과 미군은 이곳에서 휴전회담을 하게 되었다. 널문리 주막집 옆 공밭에 회담장을 짓고 판문점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우리말 널문을 한문으로 판문이라고 했다고 한다.

선조 개성 도착, 일본군의 반이 조선노비

저녁 8시경에 선조 일행은 동과 역에 도착했다. 일행은 먹지도 못하고 강행군을 해서 지쳐있었고 무척 배가 고팠다. 부엌에서는 저녁 준비가 한창이었다. 갑자기 아전과 병사들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음식을 먹어 치웠다. 책임자는 처벌이 두려워서 도망가 버렸다.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려고 했으나 아전과 군사가 도망가 버려서 임금을 호위할 병사가 없었다. 다행히 서흥 부사 남익이 군사 수백 명과 말 50필을 가져와서 출발할 수 있었다.

피난하는 동안 대신들은 임금과 조정이 이 꼴이 된 것은 영의정 이산해의 잘못이라고 선조에게 귀가 아프게 아뢰었다. 5월 2일 개성에 도착 하자 이산해를 파면하고 유성룡을 영의정에 임명했다. 신하들은 또 유성룡을 가지고 입방아를 찼었다. 그날 저녁에 선조는 유성룡을 파면했다. 유성룡은 아무 보직 없이 의주까지 임금을 동행했다.

1592년 5월 2일 선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개성에 도착한 선조는 좌의정 윤두수에게 “일본 병사의 절반이 조선 노비라고 하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 윤두수는 사실이 라고 인정했다. 조선 사람이 일본군에 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유성룡은 면천법을 제정할 것을 선조에게 건의했다. 일본군 목 하나를 베면 양민으로 해주고 둘을 베면 국왕 호위무사가 되며, 셋을 베면 벼슬을 주고 넷을 베면 수문장을 시켜 준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이 공포되자 많은 노비들이 의병에 지원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 이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노비는 양반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다. 면천법을 발원한 유성룡은 그 법을 빌미로 전쟁 후에 파면되었다.

한양 함락, 일본군 무혈 입성

도원수 김명원은 한강변에 진을 치고 있었다. 강 건너에 일본군이 나타나자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쳤다. 부원수 신각은 김명원을 따라가지 않았다. 한양 도성 수비를 믿고 있던 이양원은 일본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도주했다.

텅 빈 성에 고니시 유키나와는 흥인문(동대문)으로 가토 기요마사는 숭례문(남대문)으로 들어왔다. 일제 강점기에 두 대문을 허물지 않은 이유이다.

부원수 신각의 최후

신각은 도주하는 도원수 김명원을 따라가지 않고 한양 수비대장 이양원을 따라서 양주로 갔다. 그는 함경도 군사와 합세하여 민가를 노략질하는 일본군을 척결했다. 임진왜란 발발 이후 조선군이 처음으로 전투에서 이긴 것이었다.

한편 김명원은 신각이 명령을 어겼다고 장계를 올렸다. 장계를 받은 조정은 그를 참수했다. 나중에 전공 소식을 듣고 파발을 달렸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평양성 함락, 선조 의주 도착

6월 1일 고니시 유키나가는 개성을 함락했다. 선조는 5월 6일에 평양에 도착했다. 6월 11일에 평양을 출발하여 6월 22일에 압록강가에 있는 의주에 도착했다. 강만 건너면 조선 땅이 아니다. 고니시는 6월 8일에 대동강가에 도착하여 강 건너 김명원이 지휘하는 조선군과 대치했다. 일본군은 강을 건널 묘책이 없어서 고심하고 있었다. 강 건너 일본군을 관찰하고 있던 김명원은 일본군이 해이해져 있다고 판단했다. 6월 14일 밤에 기습 공격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계획보다 도강이 늦어졌다. 해 뜨기 전에 공격을 마치고 돌아 오려고 했다. 강 가운데 있는 섬 능라도를 건너가니 벌써 동이 뜨기 시작했다.

초반 기습공격에는 성공하는 듯했으나 일본군 증원군이 도착하자 패퇴하기 시작했다. 배를 탈 틈이 없었다. 수심이 얇은 왕성탄을 도보로 건너 황급히 퇴각했다. 일본군은 왕성탄이 수심이 얇은 지역임을 간파했다. 조선군이 대동강을 걸어서 건너려면 왕성탄으로 가면 된다고 알려준 셈이었다.

조선군은 평양성을 비워주고 총퇴각했다. 식량 10만 석은 고스란히 고니시의 손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행히 고니시는 의주가 지척인 데도 선조를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평양성에 주저앉았다. 왜 그랬을까?

7. 이순신 제해권을 장악하다



김세량 작가의 이순신 피규어

이순신을 성웅이라고 한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으로 느끼고 있을까 의심해 본다. 이순신은 한민족이 낳은 최고의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인품, 지도력, 무인으로서의 전투력, 지휘관으로서의 전술력 모든 면에서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다. 구차스럽게 영국 해군 넬슨 제독에 비유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무능한 왕과 아첨하는 신하, 그들의 모함, 형편없는 지상군을 극복하고 일본의 침략을 한 몸으로 막아 낸 인물이다. 그는 신이 창조한 최고의 인간이었다.

전투 불능에 가까운 조선 지상군의 패전으로 일본군은 1592년 6월 14일, 침공한지 두 달 만에 평양성을 함락했다. 곧바로 의주로 가고 있는 선조를 추격했다면 조선 왕과 대신들을 전멸 시키거나, 모두 포로로 잡아 들였을 것이다. 그러나 평양성에 들어온 고니시는 추격을 멈추었다. 교체 병력, 식량 등 보급이 문제였다.

일본 수군은 남해에서 호남에 상륙하여 곡창지대를 확보하고 서해를 돌아서 인천과 한강을 거쳐 한양에서 북상하는 육군을 만날 계획이었다. 수군의 중요한 임무는 육군이 필요한 식량 등 보급과 그동안 손실된 병력 보충이었다. 도요토미는 허약한 조선이 이순신이 지휘하는 강력한 수군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순신은 남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고 일본 수군의 서해 진입을 차단했다.

이순신은 5.7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필두로 5.29 사천, 6.2 미륵도와 당포, 6.5 고성 당항포에서 연전연승했다. 사천해전에서 거북선이 첫 출정했다. 일본 수군은 호남 땅에 발도 들여놓을 수가 없었다.

조선 왕자 조선인 아전이 잡아 가토에게 넘기다.

선조는 의주로 도망가면서 명나라 망명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자 광해군을 국내에 남겨 기회를 보려고 했다. 자신은 명나라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들어오면 그뿐이었다. 우선 세자가 혐지에서 죽든 살든 상관할 바 아니었다. 광해군은 전쟁터를 돌아다니며 국민이 단결할 것을 촉구하고 의병 모집에 매진했다.

한편 다른 두 왕자 임해군과 순화군은 함경도 쪽으로 피난했다. 그들은 선조가 명으로 망명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함경도 회령에 이르자 압록강을 건너려고 했다. 그 지방의 아전이었던 국경일은 두 왕자를 나포했다.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명으로 가려는 왕자들을 곱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물론 임해군이 악명 높은 왕자이기도 했다. 그는 동부 전선의 선봉장이었던 가토 기요마사에게 두 왕자를 넘겼다.

명나라 조선을 의심

명나라 조정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한 것이 아니고 일본과 조선이 합세하여 명을 치려고 한다고 의심했다. 한편 조선에서는 수차 사신을 보내어 원군을 요청했으나 이러한 의구심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다. 결국 명은 임세록이라는 사신을 조선에 보내어 정세를 확인하려고 했다. 아무 보직도 없었던 유성룡은 명나라 사신 접대 업무를 맡게 되었다. 유성룡은 그에게 대동강가에 진치고 있는 일본군 진지를 보여주는 등 전환 설명을 잘 해주었다. 임세록이 명에 돌아 간 후로는 명이 조선을 의심하지 않고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다고 믿었다. 그리고 조선이 일본에 함락되면 명이 위험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이 미국에 점령당하면 중국이 위험하다는 1이유로 중공군이 개입했던 것과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었다.

명은 요동에 주둔하고 있는 조승훈에게 평양성 공격을 명했다. 조승훈은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으로 무조건 돌격했다. 평양성 안에 일본군이 얼마나 있는지, 평양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사전 정보 없이 그저 해적 때 왜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혼 줄이 나서 요동으로 돌아갔다.

한산대첩

1592년 7월 8일, 선조는 의주에 있고 고니시가 평양을 점령한지 한 달이 채 안되었던 때였다. 조선 수군은 거제도 견내량에서 일본 배 74척을 발견했다. 조선 수군은 배 6척을 한산도 앞바다에 내보내어 일본 배를 유인했다. 조선 수군은 학익진을 펴고 일본 수군을 대파했다. 이순신, 이억기 그리고 원균이 모두 같이 싸웠다. 이를 한산대첩이라 하고 진주대첩,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 중 하나이다.

그 후 이순신은 7.10 안골포, 8.29 장림포와 부산, 9.1 부산 등 6곳에서 일본 수군을 격파했다. 일본 수군의 전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수군은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일본군은 곡창지대인 호남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별 저항 없이 빠른 속도로 바다에서 멀어져만 가는 지상군에 대한 보급을 할 재간이 없었다. 고니시는 평양에 주저앉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군은 바다에서 전라도로 진입할 수 없게 되자 진주성을 공략하여 육로로 호남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1964년 가을 흥천 제2 야전병원을 떠난 버스가 툭툭거리면서 북으로 달리다가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멈췄다. 버스에서 내려 약 5리를 걸자 조그만 셋집이 나서며 점점 인가가 사라지고 우거진 숲이 들어서더니 얼마 안 있어 군대 영문이 보이고 0000 육군 군사 수사대란 간판이 보였다. 보초에게 온 사유를 이야기한즉 내가 갈 곳을 지시하기에 그리로 가서 문을 밀고 들어섰다. 책상과 의자가 놓여있고 한쪽 벽엔 박정희 대통령 사진과 국방장관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으며 그 맞은편엔 간첩 잡는 요령이 자세히 적혀 있다. 물가를 잘 모르거나 말투가 어색한 자 또는 허리피 자죽이 깊이 나 있는 자를 잘 살피라는 등의 내용이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있었다. 내가 쓴 것이 틀림없는 편지 봉투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아니 여보시오 이따위 편지를 무엇 때문에 썼소!” 하는 호리호리하고 광대뼈가 유난히 튀어나온 소령 계급장을 단 자가 내뱉는 말에 며칠 전 부근 맹호 사단 헌병대에 있다는 하사가 찾아와서 “25사단에서 전근 온李宗위요?” 하고 물기에 그렇다 하고 무슨 용건이나고 물으니 “무엇 좀 조사할 게 있어서.”라고만 말하고 간 뒤 흑시 사단에 있을 때 같이 있다가 후방 통신학교에 통신 교관으로 차출된 方소위에게 한 편지가 말썬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이 미치자 무거운 납덩어리가 목구멍에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침을 꿀꺽 삼키고 입을 열었다.

“입금된 귀는 당나귀 귀란 옛날이야기가 있지 않소. 하도 답답하기에 친구에게 이야기하면 좀 속이 시원해질까 해서 편지했소.” 편지를 꺼내 여기저기 뒤적거리더니 묻는다.

“5.16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도둑질은 도둑질입니다. 따라서 5.16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심문하던 소령은 이것 의외라는 표정을 짓더니 한참 후에 “좋소. 오늘은 그냥 가소.” 하기에 집에 돌아왔다.

며칠 후 다시 출두 명령이 내려 같은 소령과 책상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한쪽엔 녹음기가 놓여있고 마이크가 나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지금부터 하려는 우리 대화를 녹음해도 괜찮겠소?” “물론 해도 좋소. 녹음한다고 해서 말을 달리할 내가 아니오.”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상에 관한 것을 상세히 물은 뒤 역시 5.16에 관한 질문이다. 역시 같은 대답을 하자 “4.19 후 장면 정권이 들어서 생긴 극단의 혼란 상태를 軍이 방관했다라면 이북이 남침, 전 한반도가 공산화됐을 텐데 그래도 당신은 괜찮단 말이지요?” “5.16이 없었다 해서 한국이 공산화되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소. 우리 국민의 반공정신을 너무나 얕잡아 보고 하는 소리요. 또한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대낮에 정정당당하게 해야지 밤에 총칼 들고 한 짓은 잘못이오.” 이야기가 길어지자 나는 말을 끊듯이 물었다.

“여보시오. 문제는 내가 한 편지 아니오. 내가 5.16을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지요. 당신이 내 행동이야 규제할 수 있겠지만 내 생각까지 지배할 수는 없지 않소.” “당신이 생각만 하고 있었다면 문제없는데 당신이 편지를 하니 문제 아니오.” “아니 그러면 자기 친구에게 자기 생각 말할만한 자유도 이 대한민국에 없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산주의와 피를 흘리며 싸워야 한단 말이지요.”

심문하던 소령이 더 이상 이자와 얘기했잖아 소용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가라기에 돌아왔다.

며칠 후 다시 부르기에 또 같은 자와 마주 앉았다. “대통령은 군의 총사령관이므로 따라서 군에 복무하는 자는 그의 명령에 충실히 따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오?”



내가 미국에 오게된 사연

이 회 백 (61, 시애틀)

“법이 그렇게 되어있고 그가 법을 쥐고 있으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오.”

“그럼 당신이 이따위 편지를 써서 국가 최고 원수를 모독한 짓을 잘한 걸로 생각하시오?”

“나는 국민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하지 특정 정권이나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오.”

한참 설교를 듣다가 지쳐 물었다.
 “도대체 내 죄가 무어요?”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 죄가 하나고 다른 하나는 군사기밀 누설죄요.”

“예? 아니 내가 무슨 군사기밀을 누구에게 누설했단 말이지요?”

“좋소. 오늘은 그냥 가소.” 하기에 집에 돌아왔다.

사단에 있을 때 일이다. 의무대 약제계가 약을 사단에서 타 온 것보다 더 타왔다고 싸인하라기에 그렇게 할수 없다고 했다 “군의관님 그러시면 일하기 곤란합니다” 하기에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타온다.” 하고 사단에 가서 소위 “다이아 짐” 알 수 가지고 몇 개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는 내용이 그거라는 거다. 그게 어떻게 군사기밀 누설이냐고 하니까 만약 이 편지가 북쪽 손에 들어가면 한국군의 의무 보급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였다. “군사기밀”을 “누설”한 나는 큰 죄인이지만 군용 물자를 “도둑질하는 자”는 아무 죄도 안되는 세상인가 생각하는 중인데 녹음기를 끄며 돌아가라고 할 때는 이미 짧은 늦가을 해가지고 버스를 내려 집에 들어섰을 때는 초승달이 하늘에 걸려 있었다.

얼마 후 이번엔 6군단 헌병대에서 소환장이 내려왔다. 좀 더 긴 버스여행을 하고 찾아간 헌병대 막사엔 노란 준위 계급장을 달고 주먹깨나 쓸 만큼 육중한 덩치에다 대머리가 벗어져 이마가 뽀뽀뽀 짝하는 자가 나를 맞이했다. 역시 형식적인 신상 신분에 대한 확인을 마치고 첫마디가 “귀관은 국가 원수를 모독한 사실이 있소?” 하는 거였다. 묻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 대답 없이 시간을 끌자 신경질적으로 다시 더 큰소리로 “귀관은 국가 원수를 모독한 사실이 있소!”다. “그런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소.” “아니 그런 사실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대답할수 없다는 게 무슨 소리요!”

“문제는 제 편지고 그 편지 내용이 국가 원수를 모독한 거냐 아니냐 하는 주관적인 판단의 문제인데 그 판단을 편지를 쓴 당사자에게 하라니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단 말이지요.” 이 준위 대머리의 핏줄이 뿔뿔게 올라서고 씩씩대기에 “당신 생각에 내 편지 내용이 국가 원수를 모독했다면 그렇다고 쓰구려.” 하니 더욱기가 차다는 듯 “아니 지금 당신 생각을 묻는 거지 내 생각 묻는 거냐”라고 하길래 “나 그런 적 없소.” 하니 “그럼 이게 국가 원수 모독한 게 아니고 뭐요.” 하길래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말하지 않았소. 그런 질문 나한테 하는 게 당치 않다고.” 결국 이 첫 번 질문에서 한치도 못 나가고 집에 돌아왔다. 피곤해서 잠이 금방 들었다.

이를 후 다시 같은 곳에 가자 이번엔 대위가 나를 맞았다. 얼굴이 희고 좀 학식이 있어 보이는 듯한 사람이었다.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부드럽게 나오자 나도 마음이 느긋해졌다.
 “제가 수사에 협조 안 하려는 건가요. 도대체 사리에 맞지 않는 질문을 하니 그런 것 아니오.”
 “그렇게 안 하게 할 테니 잘 해 주쇼.”
 그런 당치않은 질문은 안 할 걸로 기대하고 같은 준위와 마주 앉았다. 그런데

첫마디가 또 “귀관은 국가 원수를 모독한 사실이 있소?” 다.

“아니 오늘은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해서 당신과 마주 앉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요. 내 대답은 어제와 똑같소.”

결국 저번과 똑같은 말이 오고 가다가 돌아왔다.

며칠 후 다시 6군단 헌병대에 갔을 때 중령 계급장을 단 자와 만났다. 넓은 방 한쪽엔 박정희 대통령과 국방장관 사진이 나를 위압하듯 내려다보고 있고 한쪽엔 태극기가 걸려 있었다. 깡마르고 콧수염에 테가 얇은 동그란 안경을 낀 그는 첫눈에 일제 고등계 형사를 연상시키는 그런 자였고 풀칠을 두껍게 하고 잘 다린 그의 군복 바지는 갈날 같았다.

철천지원수를 만난 듯 나를 노려 보던 그는 내 맥살을 잡고 나를 좌우로 흔들었다. 내 중위 계급장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비명을 질렀다.

“이 새끼 여기가 어딘 줄 알아. 콩밥 좀 먹어봐야 정신 차리겠어?” 창 너머로 보이는 영창을 가리키며 내뱉는 소리다. 하도 기세가 등등해서 이것 오늘은 무슨 일 벌어지는구나 했으나 한참 “화풀이” 하듯 지껄이더니 꺼지라기에 꺼졌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이번에는 6군단 법무부에서 소환장이 왔다. 이젠 정말 법정에서 서게 되나 보다 하는 어두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의외였다. 소령인 군단 법무참모는 서울법대 출신으로 “뭘 별것 아니 걱정하지 마시오. 잘 될 겁니다.” 하면서 나를 맞았다. 얇은 음식 토해 낸 후의 기분이었다. 서울법대 갓 나온 소위가 나를 담당하게 되었다. “모처럼 오시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다른 일로 시간이 없습니다. 다시 오시라기 미안하니 제가 며칠 후 2야전에 가서 뵈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십시오.” 헌병대와 법무부 차이가 하늘과 땅 사이같이 느껴졌다. 콧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간호 대위가 쓴 병상일지를 보고 있었다. 맥박은 어떻게 혈압은 어떻게 쓰여 있는데 환자가 없었다. 그 간호 대위를 불렀다. 간호 대위 얼굴이 빨개지고 고개를 떨어뜨리며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보지도 않고 전날 밤 일지를 다 적어 놔는데 실은 병원에서 귀가 시켰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는데 군단 법무부 법무관이 왔다는 연락이 왔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눈 후 질문이 시작되었다. 이때까지 당한 모욕적인 연사는 없이 어디까지나 신사적인 심문이었다. 나를 난처한 입장에서 구해내려는 의도가 역력했다. 그러자니 내가 마음에 없는 말을 해야만 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었다. 고심하는 그에게 말했다.

“그렇게 고심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되든 제 탓이니 염려 마시고 제가 대답하는 대로 적으십시오.” 담배를 붙여 몇 모금 빨고 잠시 생각하더니 “예, 알겠습니다.” 조사서는 일사천리로 작성되어 일찍 마쳤다.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훌륭한 법관이 되기를 기원했다.

얼마간 세월이 흘렀다. 하루는 원주 1군 사령부 의무부에 출두하라는 소집장이 왔다. 갓 시작된 월남전에 보낼 군의관 지원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골치 아픈데 월남이나 갈까?”

“무슨 소리요!” 아내가 새파래져 필쩍 뛰었다. “미순이, 아빠 월남 가는 게 어때?” 한살 난 딸이 왼쪽 귀를 만졌다. 왼쪽 귀는 싫다고 할 때 만지는 거라는 바람에 웃었다.

“李宗위 어때.” 1군 의무감 홍종관 장군이 차례가 되자 내게 물었다. “글쎄요.

제 딸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군의관들의 목소가 터졌다. 내력을 내가 말해 다들 알고 있었던 것이다. 영문 모르는 의무감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이것 농담 할 일이 아니야!” 하고 나를 나무랐다. 그런지 얼마 안 되어 제1군 법무부에서 소환장이 날라왔다. 대령인 법무감과 홍종관 의무감이 같은 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법무감이 법적인 논리를 폈다. 국가의 안위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비상수단을 써서라도 국가를 구해야 하는 것이며 5.16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는 논리였다. 홍종관 장군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도 내 진술을 반복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자 대화를 끊었다.

연말연시가 되어 모두들 들떠 있었다. 강원도 산바람이 차갑게 흥천을 휘몰아치는 어느 날 편지가 날아왔다. 6군단이 발신인으로 되어있고 내용은 간단했다. 군법 몇조 몇 항에 의하여 나를 1월 말일자로 군에서 제적하기로 하였으니 이의 있으면 그전에 이의를 제기하라는 것이었다. 제2 야전병원 인사참모인 김 대위가 소식을 듣고 나를 불렀다. 그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李宗위 그런 일 있었으면 진작 이야기 할 것이지, 병원장도 대학 선배로서 도와줬을 것 아닌가. 고생할 것 다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명예스럽게 제대해야지 제적이 될 말인가. 이의 제기 하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싫다는데 제가 애걸할 수 있나요.”

병원장이 흥천 어느 요리집에서 송별회를 열어주어 제2 야전과 작별하고 서울로 집을 옮겼다. 그로부터 거의 3년 아무 생각 없이 외과 수련생활을 원주에서 보냈다. 수련을 끝마칠 시기가 가까워 지자 그후 어디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사회에 깊이 박힌 부조리가 너무 커 내 설자리가 없다. 병역 미필자는 명함도 내놓을 수 없는 세상이니. 생각해 본적도 없던 미국이 머리에 떠올랐다. 거기에는 흑시 내가 설 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할 수 없이 나도 ECFMG를 치고 Intern Matching Program에 들었다. 피츠버그에 있는 병원이 나에게 배당되었다. 김영우 원장이 자기가 근무하던 Roanoke에 소개해 주겠으니 그리로 가라고 했으나 사양했다. 거기 갔다가 잘못하면 원장님에게 누를 끼칠까 봐.

병역법을 뒤졌다. 장교로 복무 중 제적된 자는 재 신체검사 후 나머지 기간을 사병으로 복무하면 병역을 필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나 같은 고령자는 사병으로 징집하지 않는 군 방침 때문에 병역을 마칠 수 없다는 답이 나왔다. 남산에 있는 병무청에 병역증명서 발부를 신청했다. 안 되어 있으니 다시 오라고 두 번을 허탕친 후 세 번째 갔을 때 “이상한데?” 하더니 안으로 들어오라기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들어가니 과장이라는 사람이 고개를 가우뚱하더니 병적을 보여 주면서 “1964년 개정 병역법 몇조 몇 항에 의하여 병역면제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아 알 수 없으니 문제요.” 하는 것이다.

나는 1961년 마산군의학교에 입대했다가 당일 귀향 처분을 받은 터였다. 이유는 4.19 때 받은 무릎에 받은 총상 때문에. 그 다음 해 징병검사로 제2 을종으로 되어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군에 입대, 복무하다 제적된 사실 등은 하나도 적혀 있지 않고 그 후 병역법 개정으로 군 복무 면제자로 적혀 있었다. 5.16후 의사로서 군대 안 간 자는 전부 ‘백’으로 안 간 놈들로 간주 전부 소집해서 나도 군 복무한 것이다. 면제자란 통보받은 적이 없어 나는 병역 면제자이면서 군 복무했던 것이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더니 “사유는 기재 불충분으로 확인 불능”이란 단서를 붙인 병역 증명서를 내주어 받았다. 사흘 후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968년 6월 25일이었다.



카뮈와 Sartre- 그들은 친구인가

이수인(63, 남가주)

카뮈가 선도하던 우정

술에 취한 Sartre가 카뮈에 말을 던진다. “내가 더 지성적이지?” “물론이죠.” 여덟 살이 더 젊은 카뮈는 벌써 그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행동하고는 거리가 먼 철학의 천재는 질투했다.

카뮈와 사르트르의 관계는 많은 것이 이십세기 두 거장 자신들의 저작을 통해서 알려졌다.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두 Memoires와 실화소설 ‘망다랭(Les Mandarins)’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줬는데 그 기록이 얼마나 객관적인 서술인가 의심하는 것도 이유가 있다. 보부아르는 영향력 있는 작가이며 철학자이지만 카뮈에게는 여성으로서 매력적이지 않고 그녀를 견딜 수 없는 bluestocking(여성 작가를 비하하는 말)이라 부르고 지적 동격으로 대하지 않았다. 또 그녀는 사르트르와의 life partnership의 관계를 좋은 이미지로 유지하고 싶었을 테니까. 반면에 그녀는 카뮈의 연인이 되기를 원한적이 있었으니까. 그녀의 카뮈에 대한 친근감은 ‘망다랭’에도 서술됐다.

그들 셋이 처음 만난 것은 사르트르의 희곡 ‘파리떼(Les mouches)’가 공연될 때였다. 물론 서로의 저서들을 크리틱 하면서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의 교류는 서로의 저서들을 열정적으로 발견하면서 시작됐고 철학적인 또는 정치적인 유사점을 발견하면서 떠들썩하게 진행됐는데 인간적 존경이나 친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방인’에 대한 사르트르의 평론은 대단한 호평이었다. 그를 카프카나 헤밍웨이에 비교하며 시지프스(카뮈의 ‘시지프스의 신화’)와 로캥탱(사르트르의 ‘구토’의 주인공) 유사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들의 철학적 공감은 인간의 부조리와 이에 대한 투쟁의 필요성이었고 종교를 포함한 현실 도피주의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카뮈는 ‘페스트’에서 이미 투쟁을 위한 인간끼리의 협동 정신을 역설해서 그 당시 한참 유행이던 참여문학의 토론에도 사르트르보다 앞섰다.

그들의 배경을 보면 인간적인 친밀성이 생기기 어려웠던 이유를 알 수 있다. 지독한 가난과 알지미에 해 밝은 항구도시에서 온 new comer 카뮈는 험담했다. 스페인의 피가 섞인 인간적 친밀감과 무궁무진한 애깃거리가 그를 매력 있게 했다. 그는 곧 행복하고 유명해졌다.

사이드 라이너 사르트르도 고백한다. “그는 나하고는 정 반대야. 그는 모든 것을 가졌어. 개인적인 매력과 찬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행동으로 향한 사르트르의 도전의 노력은 허위적 거침으로 끝나는 게 일수였다. “카뮈는 역사를 우리들보다 더 깊게 그리고 더 충만하게 살았거든.”

이 추세는 그들의 소설이나 희곡에서도 나타난다.

사르트르의 소설 ‘구토’의 주인공 로캥탱은 bouville(진흙탕)에서 허위적 거린다. 행동을 못한다. 카뮈의 소설 ‘페스트’의 주인공들은 행동과 인간들의 유대를 강조한다. 이는 카뮈가 지하운동, 연극 활동에의 열정, 공발(Combat)의 에디터로 활약하면서 real life에 참여한 데서 연유한다.

보부아르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검은 피부의 젊은이, 손사람이 성공하려고 파리에 온 것인가. 처음은 어색한 만남이었지만 카뮈의 연극에 대한 열정 때문에 사르트르는 그의 희곡 ‘No exit (Huis

clos, 닫힌 문)’의 스테이징을 카뮈에게 부탁하면서 급격히 가까워졌다. 카뮈는 가르센의 역을 맡기도 했다. 보부아르는 걱정을 했다. 카뮈의 불임성 있고 현혹스럽고 강렬한 인상과 문학성이, 작고 외사시인 사르트르를 압도할 수 있으리라 염려했다. 보부아르의 우려는 현실화 되었는데 카뮈가 위대한 철학인들을 열거하면서 사르트르의 이름이 빠져 있었던 것이다.

사르트르의 지적 교양과 모든 것을 이론화하는 성격과 허세가 없는 성격은 서로 보완적이어서 서로에게 끌리게 된다. 사르트르에게 life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라면 카뮈는 예술인이고 소설가였다. 카뮈에게는 체계적인 철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철학의 dabbler였다. 사르트르는 Les temps modernes의 에디터로, 카뮈는 공발의 에디터로 교류를 했다. 카뮈는 사르트르에게 real life의 기회를 준다. 행동과 거리가 먼 사르트르와 보부아르는 이를 감당할 생활 체험과 기교가 없었다.

여성에 대한 두 사람의 논 스톱 추적은 그들을 한 텐트 안에 머물게 했다. 여성 추적도 카뮈가 단연 우세했다. 사르트르의 많은 젊은 섹스 파트너들은 life partner인 보부아르를 놀라게 했으며 사르트르의 두 미스트레스는 카뮈와 사르트르가 주인공이 된 소설 ‘망다랭’에 등장한다. 카뮈의 여성 추적은 아내 Francine을 두 번이나 자살 소동으로 몰아넣었다.

두 지성은 전후에 급격히 친해졌으며 포도주와 섹스를 같이 즐겼다. 그들의 떠들썩한 교류는 일 이 년 계속된다. 모두 이십 년의 교류를 한다. 첫 십 년은 친구로, 나머지 십 년은 서로를 공격하면서. 이들이 갈라진 뒤 사르트르의 마지막 편지가 Les temps modernes에 실렸다.

“카뮈 씨, 우리의 우의는 쉽지 않았어. 많은 것은 우리를 접근시켰는데 몇 가지가 우리를 갈라 놓았어.” 카뮈가 죽은 뒤 그는 말했다. “말다툼은 우리가 같이 사는 또 한 가지 방법이야.”

서로 헤어진 뒤 카뮈는 고백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어. 우정은 껌데기였어”

그들의 문학적 스타일, 철학적 체질이나 사회적 배경이 우정의 쇠퇴를 예고하고 있었다.

실패한 신(God that failed)

카뮈에게는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모두 실패한 신이었다. 에세이집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자기기만 또는 철학적 자살이라고 딱지를 부친 기독교는 인간을 참상에서 구원하지 못했다.

전후 ‘붉은 바이러스’ communism이 유럽을 휩쓸 때, 공산주의는 많은 지식인들에게 신이 없는 완전한 세계의 희망이었으나 이상향의 약속은 공산주의의 폭력 사용으로 무참히 배반당했다. 소련의 헝가리 침략과 앙드레 지드의 여행기 ‘Return from Soviet Union’은 대단한 반응을 보였고, 불거지는 반공산주의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르트르는 ‘더러운 손(Les mains sales)’이라는 희곡을 썼다. 마시스트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러운 방법도 쓴다는 내용이다. 정치적인 변화를 위해서 폭력도 필요할 때가 있다는 논조였다. 카뮈와의 결별을 재촉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카뮈에게는 폭력 사용이 논쟁의 중심이 된다.

헝가리 침략 뒤에 사르트르도 ‘The ghost of Stalin’을 통해 공산주의와 결

겨울 편지

서윤석(68, 버지니아)

모란공원 범바위 옆 묘지에 눈이 소복하다
언 강가에서 맨발로 봄을 기다리던
유물遺物이 된 세대를 누가 기억하라

롯데 빌딩이 강변에 마천루처럼 치솟고
자동차 불빛이 밤엔 은하수처럼 흐르는데
여객기 무거운 몸을 내리는 수도 워싱턴에서
아직도 전쟁터에서 시달리는 꿈, 우습구나

약병藥瓶이 놓인 테이블 앞에 앉아 세월을 되돌아보고
동서東西를 잇는 디아스포라Diaspora 작품을 읽고 쓰노라니
고마운 아내, 정다운 벗들, 좋은 이웃들 여기 있구나
떠나버린 소중한 인연因緣들 탄식 속에 가끔 나타나 눈시울 적시고
점점 멀어져가는 살던 마을이 다 그리운 고향이다

보름달 아래 예쁜 바람이 툭툭 창문을 두드리니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 긴 겨울을 견딘다



A Winter Postcard

Seo Youn-seok

Snow has fallen thick on a mound near the Tiger Rock in Peony Cemetery.
Who will remember the generation that has become a legacy of the past,
Who used to wait for spring, loitering barefooted near a frozen river?

When Lotte Conglomerate Building soars like a skyscraper beside the river,
And the automobiles' headlights stream like the Milky Way at night,
How ridiculous! I still suffer from the nightmare of a war-front,
Living in Washington D.C., where heavy passenger planes descend to land!

Sitting at a table laden with medicine bottles, I look back on the years past,
While reading and writing the works of Diaspora of the East and the West;
Then I suddenly realize that my dear wife, friends, and neighbors are all here.
I wet my eyes with tears whenever I recall those who are no longer near me,
And realize that the fading villages where I lived are all my longed-for homes.

The pretty wind under the full moon knocks on the window to cheer me up,
And I feel prepared to endure the dreary winter with gratitude and love.

(Translated by* Sung-Il Lee)
*is professor emeritus of English at Yonsei University

별을 선언하지만 사회주의에의 희망을 갖고 있었다.

카뮈에게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 서로 간의 냉각이 시작되고 카뮈는 이런 말을 했다. “당신이 마시스트가 되면 당신은 살인자가 되는 거다. 마시스트는 권유나 대화를 모른다. 종교처럼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허비하는 것이다.” 카뮈는 공산주의자들의 주적이 된다. 카뮈를 젊은 나이에 죽게 한 교통사고가 공산주의자들의 사보타주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진 사람도 있다.

실패한 신들 대신 카뮈의 해결 방법은 인간적 유대를 통한 revolt였다. 실존은 고립이 아니다. 다른 실존과 유대 속에서만 존재한다.

결별

철학적 에세이집 ‘반항하는 사람(L'homme revolte)’과 소설 ‘추락(La chute)’을 쓴 것은 ‘망다랭’과 사르트르의 ‘존재와 무’에 대한 대답이었다. 보부아르는 ‘망다랭’에서 카뮈가 실제 사용한 말들을 쓰면서 주인공 앙리를 진흙탕

로 끌어들었다. 소설 ‘추락’은 사르트르와의 관계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다. 매 페이지마다 사르트르와 충돌적인 언어로 차 있다. 사르트르가 공격할 때 쓰던 문구들이 그대로 들어있다. ‘추락’의 주인공 클라망스는 카뮈처럼 여인, 러그비와 연극에 미쳐 있었다. 사르트르에게 반응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공산주의를 비난하고 부조리를 도피해 공산주의 유토피아로 도망치는 것은 종교에의 도피와 마찬가지로 자기기만이라 말한다. 이것은 곧 부조리를 당당히 대면하고 생활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사르트르는 대답을 발견하지 못한다. 책의 리뷰를 꺼렸다. 대항하는 방법을 몰랐거나 대항하기를 피했거나, 결국 사르트르의 반응이 Les temps modernes에 실린다. “카뮈 씨, 우리의 우정은 쉽지 않았어.” 그들은 카뮈가 죽을 때까지 우정의 발자국을 지우고 있었다.

카뮈에게 공산주의는 조직화된 범죄였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작품전

홍 전 (70, 시카고)

작년 3월에 서울 아산병원장에 취임한 박승일 원장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면서 혹시나 아산병원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할 수 있나를 조심스럽게 문의를 했다. 그런데 상당히 놀랄 만한 답을 받았다.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년 9월에 공개 신청을 받아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친 심사 후 다음 한 해 일정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로 8월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를 하고 접수를 받는다고 했다. 세부사항을 찾아보니 우선 아마추어는 안되고 미술대학을 나온 전업 화가에게만 전시의 기회가 주어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한정된다고 하니 나로서는 둘 다 해당이 안 되지만, 우선 그동안의 준비된 작품들을 사진을 찍고 Webhard.co.kr에 올리고 나서 한참 기다렸다. 그런데 다행히 12월에 갤러리 담당자인 최향 실장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2022년 9월 16일(금)부터 23일(금)까지 일주일 동안 전시회를 허락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공간 천장이 높고 통로로도 이용되는 공간이라 좀 산만하지만 큰 크기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기를 원했다. 부랴부랴 화구점에 가서 내 차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로 큰 캔버스를 보니 122x152cm(48x60in)로서 한국에서는 100호 보다 조금 작은 90호에 해당하는 캔버스를 세 개를 사서 내 화실에 펼쳐 놓고 12월부터 열심히 그려서 일단 Chicago Medical School에서 매년 발행하는 Synapses라는 잡지에 응모를 해 놓고 서서히 한국에 가서 전시회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이미 에티오피아에서 그린 그림들로 2021년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전시를 해서 준비된 작품들이 많이 있었으나 욕심으로 다시 여러 개를 추가해서 그리면서 한국에 계신 김유환 교수님과 긴밀한 연락을 취했다. 김 교수님은 내가 에티오피아에서 사역을 할 때 Interventional Radiology Program을 도와주신 분들 중의 한 분으로 고대 안암 병원의 교수로 정년 은퇴하시고, 전주 예수병원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전주에서도 전

다. 그러자 이번엔 전시회를 하면 수익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물어보아서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본인이 몸담아 봉사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의사회에 기증하여 앞으로 의료선교사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젊은 의사나 의대생들이 국제기독교의사회(International Christian Medical & Dental Association)에 참여하게 하고, 내년 Zimbabwe에서 열리는 회의와 2026년 한국 제주에서 개최 예정인 동회의에 제3국의 가난한 의사들을 초청하는 기금으로 쓰면 어떻겠냐고 하여, 나는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여 조금 더 여러곳에서 전시회를 펼치고 모금 운동을 하기로 했다.

그 후에 모든 과정이 속도를 내어 진행이 되었고 서울 삼성병원 본관 입구 맞은편에 위치한 밀알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 연이어 대전과 전주에서의 일정을 잡게 되었다. 사실 처음 아산병원 갤러리에서만 전시를 하려고 생각했을때는 전시실의 면적이 최대 가로 넓이가 30m(100 feet 미만) 인고로 최대 25개의 작품만 가지고 가려고 했으나, 밀알 미술관의 크기가 중간에 이동식 판막이벽 까지 합하면 60m(200 feet) 정도의 크기로 가지고 있는 모든 작품을 운반하여 전시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밀알미술관의 성형경 실장과 이메일로 주고 받으면서 우선 두 주일 동안 사용료 200만원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특별 배려를 받았고, 아산갤러리에서 전시를 마치는 23일 작품을 이동하자마자 설치를 하고 24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시를 하도록 허락을 받았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때 이미 다른 화가가 전시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흥정길 원로목사님께서 그 작가의 양해를 받아서 내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었다. 감사한 일이다. 밀알 미술관의 전시가 확정된 후에 대전의 천성감리교회의 On Art Gallery와 전주 예수병원 구바울기념의학박물관의 전시가 차례대로 계획 되었다. 한국으로 모든 작품을 가지고 가기 전에 우선 시카고에서 선을 보이기 위해서 다운타운에



시회를 하면 딱 일주일만 아산병원에서 전시를 마치고 시카고로 돌아오는 것보다 나올 것 같아서 도움을 청했다. 그런데 나한테 처음 질문이 지난 2016년에 서울 명성교회에서 전시회를 했을때 작품을 판 수익금을 어떻게 했냐고 물으셔서, 당시 에티오피아의 명성교회대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액을 기증 했다고 답을 했

위치한 Palette & Chisel Academy of Fine Arts에서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전시를 하고 본격적으로 작품 운송을 준비했다.

작품들을 모두 세어보니 크고 작은 것 합하여 도합 66점이 되고, 5 feet의 큰 캔버스들을 과연 어떻게 운반을 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쉽지 않았다. 우선 상자

를 짜서 모든 캔버스를 그대로 넣어서 보내려면 항공 화물로는 엄청난 비용이 들겠고, 컨테이너에 넣어서 배편으로 보내려면 대략 2달이 소요되지만 요즘 화물 운송대란으로 배달 날자 보증이 안 되고, 화물칸 바닥에서 작품의 손상을 책임지지 못해서 보험을 들어야 한다는 책임자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 끝에 모든 작품의 캔버스를 나무 프레임에서 떼어내고 돌돌 말아서 비행기에 탈때 추가 수화물로 체크인하고 수수료를 물기로 작정했다.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할 때 모든 그림들을 캔버스에서 떼어내서 돌돌 말아 가지고 와서 시카고에서 다시 스트레치를 한 경험이 있고 모든 장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하기 쉬웠다. 단지 커다란 캔버스는 내가 다루기에 힘들것 같아서 아산갤러리의 최향 실장이 소개한 유휴방이라는 곳에 문의하여 부탁하니 약 20일간의 작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시회가 열리기 한참 전에 비행기 표를 사서 시카고를 떠났다. 우리가 두달 이상체류에 필요한 옷가지하고 그림 도구와 캔버스 작업에 필요한 장구들과 함께 작품들을 모두 체크인하니 수수료 500 달러를 더 지불하였다. 아직도 COVID 19 으로 인한 여행 통제 규정에 따라 출국하기 전날 시카고에서 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고, 사전여행 허가를 받은 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다시 8만원을 내고 검사를 반복해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에야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허락을 받은 밀알미술관을 방문하여 가지고 온 작품들이 손상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모두 펼쳐 놓고 나흘 동안 매일 7시간씩 꼬박 서서 캔버스를 다시 스트레치를 하고 지하실의 창고에 넣어두고, 큰 작품들 10개와 수채화 등 작은 그림들을 유휴방에 맡겼다. 전시회까지 오래 기다려야 하므로 마침 제주의 국제 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아들네를 방문하여 가끔 밖에 나가 야외 사색도 하면서 모처럼의 휴가를 즐겼다. 그러나 때마침 한반도를 상륙한 힌남노 태풍을 맞아 며칠 동안은 집안에서 쉬었다.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전에 에티오피아에 1년 동안 명성병원에서 봉사한 젊은 정형외과 의사가 자기네 아이들이 모두 외국에 유학을 가서 빈방이 두 개가 있으니 마음 편하게 와 있으라고 초대하여 감사하게 그 집에서 묵으면서 호텔에 묵게 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그 집에 머무르는 동안 Dr. 조와 함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6시 새

늙은 의사의 겨울 꿈

조 중 행 (69, 시카고)

눈이 내렸다.
은 천지에 눈이 석자나 쌓이고
이른 해는 낙점부터 서산에 지느니,
저녁 노을 서러운 이런 날엔,
도연명의 시를 읽는다.

곰삭은 내 목소리 한 참 낮추어
계면조(界面調)*로 읽는다.

된장찌개, 한점 너비아니, 보리밥 저녁
탁주 반 사발에,
내 얼굴을 붉히고?

주름진 아내의 무릎을 베개 삼아-
남포 불빛 어울거리는
뜨뜻한 아랫목에 비스듬히 누어
낙작 지근한 나의 뼈마디들을 녹히며,

머나먼 이역(異域)의 이런 겨울 밤엔,
도연명의 시를 읽는다.
천천히

화로의 군밤도 천천히 익어가고 있는
이런 밤에는
도연명의 시를 읽는다 ---.

임인년(壬寅年) 맹동(孟冬) 미국 우거(寓居)에서

*계면조(界面調): 눈물자음으로 얼굴을 얼룩지게 하는 전통적 판소리, 정악-동 국악의 슬픈 노래 창법



"중이에 수채": 배경 병풍 模寫-허주 이징(李澄) 난죽 병풍 (조광조 선생 시, 허목, 김상헌 선생 발문) 유희준 명작 순례

벽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덤으로 받은 축복이었다.

9월 16일 금요일에 밀알 미술관에 가서 창고에서 맡겨놓은 그림들을 골라서 트럭에 싣고, 하나운송의 권사장과 같이 아산병원에 도착하여 갤러리에 작품 설치를 끝냈다. 최향 실장이 와서 그림 배열에 대해 조언과 함께 여러가지 배려를 해주었다. 아직도 코비드 때문에 병원 출입에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고 갤러리에 참관을 원하는 사람은 최소 24시간 전에 최실장께 요청을 하면 핸드폰으로 출입허가를 보내고 미리 문진을 한후 QR code를 받아서 스캔을 해야 병원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 미리 신청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왔다가도 전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야 했다. 마침 미국에서 온 우리 아이들과 제주에서 올라온 아들 며느리들도 예외가 아니라 필요한 과정을 밟은 후에야 전시장에 들어올 수 있었다. 18일 주일 오후에 한국기독교의사회의 임원들이 중심이 되어 개관예배를 드리고 정식으로 전시회 시작을 했다. 특히 최아란 원장의 오카리나 <다음면에>

2022-23 회비 및 후원금 현황

전경배 51대 회기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

1950	나수섭	1954	이동식
1956	박상기 서상철		
1958	김부근 김시한 김석희 김해압 문석면 박호현 류치열 이동립 이만택 이장섭 이종용 이종국 최병두 최창송		
1959	김교안 김병구 김용덕 김한섭 나길진 방석운 서경화 오형원 임낙중 정태진 최대한 최용천 최종진 최혜숙		
1960	권기홍 김영환 김인환 김택경 박명근 박준명 오신중 이경화 이광준 이덕승 이상일 이종석 임종원 임필순 전희근 한성수		
1961	강창욱 광동린 고의결 김영철 김예흠 김화섭 박승균 박준환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동해 이준우 이재승 이회백 장성환 장태환 정두현 정철용 조은순 황현상 최공창 최성덕		
1962	김석식 김호균 남성희 민경환 박종건 승홍일 이기범 이상무 이석우 이영웅 이태봉 장항순 조명호		
1963	강영호 고영희 권영재 권영조 김갑중 김정일 김승태 김태웅 김태형 김택수 김현철 노인규 마동일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윤영섭 윤영옥 윤진수 이수인 이송현 장세곤 조한원 진병학 추재욱 하상태 한광수 한기현		
1964	강창만 권정덕 김용두 김태환 라찬국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오수환 오유섭 유광현 윤희기 이정은 이정필 이주영 이종오 이홍표 전희택 정유석 조동준 조성준 차응만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1965	권오연 구경희 김길중 김택진 김육현 박수안 손광호 이광선 이범석 이정의 이한승 이한중 이화성 임현재 전영균 정길화 정재찬 조성구 채도경 채무원 최동욱 최영인 홍수웅 황규정		
1966	김용재 김의신 김충규 남궁승 이명희 이영은 이영일 이인수 장한교 조관상 조규용 조의열 최순채 최영자 한동수 한일성 황 철		
1967	강명식 김성철 김태웅 문경웅 우준균 유 달 이근웅 이민우 이영균 이준식 이태안 한영수		
1968	김경인 김영남 김영덕 김재관 김정웅 김주평 김희주 김 철 노영일 박정식 서윤석 송창호 안금환 안세현 유우영 이건일 이상훈 임공세 정재성 차재철 최 철 흥광신 황훈규		
1969	김병오 김윤성 김중권 김창남 박수웅 송용재 신영찬 안병일 양재관 엄규동 오선웅 육순재 윤효윤 이용환 이충호 임안무 임유규 정한규 조중행 천양곡 최종진 최종일		
1970	김형달 문성길 박흥식 방준재 송요준 오석일 이명상 장극기 장현식 조남현 최원일 흥 건		
1971	강유구 강창홍 강태수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제홍 김창구 김효순 노재홍 박상호 배성호 서상현 서정자 오동환 오상현 이원택 이종일 이종준 장 철 정인용 조병선 최영철 하준영 홍성진 황동하		
1972	김광호 김재석 김현배 석창호 오용호 윤성수 이신재 장병호 정진우 조경호 황용규		
1973	김정용 김천일 나두섭 민인기 박진섭 서인석 심완섭 위장호 이계석		
1974	구재훈 권철수 유영준 임자은		
1975	김명호 김원정 김자역 박인영 배영훈 전경배		
1976	김정아 유영걸 최광휘 한승신		
1977	박일우	1980	박남훈
1982	차민영	1983	전원일
1984	서귀숙 정희국	1985	임경옥
1991	강민종 홍정연	2000	박은경
2001	김민정 김태곤	2002	최태웅
2008	박종한	2012	최예원

38th CONVENTION DONATION

최종진 (59)	100	권기홍 (60)	500	이종석 (60)	200	이재승 (61)	2,000
황현상 (61)	100	김태웅 (63)	1,000	조한원 (63)	175	전희택 (64)	100
이홍표 (64)	700	허선행 (64)	200	차재철 (60)	75	장한교 (66)	100
김일영 (71)	1,000	이원택 (71)	75	김창구 (71)	75	배성호 (71)	100
김성환 (71)	1,000	나두섭 (73)	500	서인석 (73)	500	권철수 (74)	200
김명호 (75)	2,100	김정아 (76)	1,000	최광휘 (76)	100	한승신 (76)	1,000
차민영 (82)	3,000						

GREEN PROJECT FUND

최창송 (58)	1,000	이종석 (60)	200	허선행 (64)	100	차재철 (68)	100
박수웅 (69)	100	김유식 (71)	75	배성호 (71)	175	서인석 (73)	100
김명호 (75)	100	박인영 (75)	100	전경배 (75)	10,000	김정아 (76)	100
박남훈 (76)	200	한승신 (76)	100	서귀숙 (84)	200	장세권 (01)	5000
최태웅 (02)	100						

CHARITY FUND

박승균 (61)	100	황현상 (61)	100	이상복 (62)	100	허선행 (64)	100
홍선경 (64)	100	채도경 (65)	100	최영자 (66)	200	강창홍 (71)	100
민인기 (73)	200	김명호 (75)	100	김정아 (76)	100	한승신 (76)	100

SCHOLARSHIP FUND

이만택 (58)	200	임필순 (60)	200	한성수 (60)	125	손기용 (61)	200
황현상 (61)	100	이기범 (62)	375	권영조 (63)	500	김태웅 (63)	10,000
장세곤 (63)	350	한광수 (63)	300	한기현 (63)	375	안영승 (64)	200
이홍표 (64)	175	허선행 (64)	100	전희택 (64)	100	최영인 (65)	100
강명식 (67)	175	이영균 (67)	200	김주평 (68)	75	오석일 (70)	150
장현식 (70)	100	김효순 (71)	125	배성호 (71)	200	서정자 (71)	400
조경호 (72)	100	김명호 (75)	100	김자역 (75)	500	김정아 (76)	100
한승신 (76)	100						

Mrs. 김공자 (60, 고 김국민 부인) 5,000 Mrs. 이강옥 (61) 30,000

GENERAL DONATION

서상철 (56)	175	김석희 (58)	200	문석면 (58)	50	김교안 (59)	50
정태진 (59)	75	최혜숙 (59)	650	권기홍 (60)	500	박명근 (60)	50
이경화 (60)	75	강창욱 (61)	150	고의결 (61)	50	김화섭 (61)	100
이동해 (61)	50	이재승 (61)	2,000	이회백 (61)	1,000	장성환 (61)	100
황현상 (61)	75	조명호 (62)	200	이상복 (62)	125	진병학 (63)	100
추재욱 (63)	50	윤영옥 (63)	75	신경호 (63)	75	송용덕 (63)	175
노인규 (63)	50	한광수 (63)	175	허선행 (64)	100	양운택 (64)	100
전희택 (64)	250	권정덕 (64)	200	최준희 (64)	200	김택진 (65)	100
박수안 (65)	100	이한승 (65)	50	정길화 (65)	100	권오연 (65)	50
채무원 (65)	200	이인수 (66)	100	조규용 (66)	100	김성철 (67)	75
이근웅 (67)	75	한영수 (67)	200	이건일 (68)	100	이상훈 (68)	175
임공세 (68)	125	차재철 (68)	100	김중권 (69)	200	윤효윤 (69)	100
이용환 (69)	100	김형달 (70)	100	방준재 (70)	100	강창홍 (71)	75
김창구 (71)	100	오동환 (71)	100	이종준 (71)	300	장 철 (71)	75
조병선 (71)	75	하준영 (71)	75	오용호 (72)	200	김천일 (73)	100
박진섭 (73)	10,000	이계석 (73)	100	권철수 (74)	100	유영준 (74)	75
김명호 (75)	100	박인영 (75)	50	배영훈 (75)	175	김원정 (75)	100
김정아 (76)	75	유영걸 (76)	475	한승신 (76)	75	차민영 (82)	1,000
Mrs. 김현숙 (고 김윤태 56, 부인)	1,000						

AASCDTF DONATION

김태환 (64) 100 김창구 (71) 100 김명호 (75) 100 김정아 (76) 100 한승신 (76) 100

서울의대 북미주동창회 새 주소

Payable to **Unit #810**
SNUCMAA **5501 MERCHANTS VIEW SQ**
HAYMARKET, VA 20169

동부시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어린이들과 함께 즐기는 장면도 있었다. 그리고 남서울은혜교회에서 두 번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그 많은 교인들이 불평하는 기색없이 체육관 같은 넓은 공간에서 접는 의자에 앉아서 차분하게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는 진중한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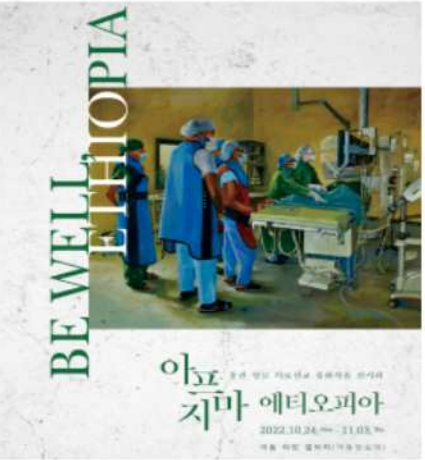
마침 서울의대 동창회관에서 함춘미전이 함께 열리게 되어 특별히 미국에서 가지고 온 의료선교와는 관계없는 두 점의 유화 소품을 액자를 갖춘 후에 직접 전철을 타고 가서 전해주고 개관을 하는 날 바쁘지만 억지로 시간을 내어 다시 전철

을 타고 가서 사진을 찍고 출품한 선배들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왔다.

10월 5일 수요일에 밀알미술관에서 전시를 마치고 6일에 가평에 있는 생명의 빛 예수마을을 찾았다. 가기 전에 극동방송 운영위원 목요 아침예배에 참석한 후 김장환 목사님을 뵈었는데 극동갤러리에서도 전시를 하라고 말씀하셨다.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프로그램에 인터뷰에도 초청을 받았다. 김장환 목사님, 최혜심 아나운서와 함께 세 사람이 처음에는 나의 에티오피아 의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후반에는 극동방송국에서 열리게 되는 전시회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게 되었다. 인터뷰 내용이 유튜브로 접속이 가능하다. https://youtu.be/NZWib_sagvo

마침 하루 쉬는 날에 공교롭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된 것이 우연이지만 감사하기 짝이 없다. 전시회를 하는 동안 이번 전시회를 마련해 주신 흥정길 목사님께 에티오피아 정교회 사제의 그림 한 점을 선사하였는데 바로 생명의 빛 예배당에 영구 소장하게 된 것이 영광이 아닐 수 없다. - 4월호 계속 됩니다.

<전면에서 계속> 연주가 은혜로왔다. 여러 분들의 축사에 이어 내가 인사 말씀을 하고 단체사진을 찍고 개관예배를 마쳤



다. 그 후에 끊임없는 외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전시장을 방문하였고 박승일 원장님을 비롯하여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녀갔다. 전시회를 하는 동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곧 '은퇴 의사의 마지막 사랑, 화폭에 담긴 에티오피아'라는 제목의 기사가 9월 16일 자로 인터넷에 소개가 되었다. 물론

내 친구들도 미리 연락을 하고 찾아오기도 했고 병원에 우연히 진찰 받으러 왔다가 만난 친구들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23일 금요일 아침에 착잡한 심정으로 작품들을 떼어내고 하나운송의 권사장이 와서 모든 작품들을 싣고 밀알 미술관에 도착하여 창고에 남겨두었던 모든 작품들과 함께 벽에 걸고 전시 준비를 했다. 성현경 실장과 조연성 자매가 열심히 도와주어 모든 과정에 힘들지 않았고 점심도 주문해서 배달을 해주어 일하는 중간에 요기도 하였다. 25일 주일 오후에 두 번째 개관예배를 드리는데 남서울은혜교회의 선교디렉터 김학유 목사님의 말씀과 축도 외에도 흥정길 원로목사님께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고, 용태순 교수의 첼로 연주가 빛을 내었다. 밀알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때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매일 밀알학교에 오는 어린이들과, 어른 중에도 약간의 문제를 갖고 있는 듯한 분들이 찾아와서 그림을 자세히 바라보고 나름대로 좋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심지어는 아주 어린 유치원 정도의 아이들을 인솔해 오신 선생님이 알아듣든지 못하든지 열심히 설명을 하면서